杜諺 十七之八

鳥虫魚花草竹

木獸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七

鳥 古詩十一首 律詩二十五首

鳳凰臺

亭亭鳳凰臺北對西康州 亭亭은高貌ㅣ라 西康州ᄂᆞᆫ在同谷郡ᄒᆞ니라 ○노ᄑᆞᆫ鳳凰臺ㅣ北녀크로西康州를對ᄒᆞ얏도다

西伯今寂寞鳳聲亦悠悠 西伯은文王이니其時예鳳鳴于岐陽ᄒᆞ니라 悠悠ᄂᆞᆫ遠也ㅣ라 ○西伯ㅣ이제괴외ᄒᆞ시니鳳의소리도ᄯᅩ머러멀도다

山峻路絕蹤石林氣高浮 뫼히노파긼헤사ᄅᆞ미자최그츠니돐수픐서리예氣運이노

피뎃도다 安得萬丈梯爲君上上頭 엇뎨萬丈인ᄃᆞ리ᄅᆞᆯ어더님금爲ᄒᆞ야웃그네올라가려뇨 恐有無母雛飢寒日啾啾 어미업ᄉᆞᆫ삿기주리며치위나날우러잇ᄂᆞᆫ가젼노라 我能割心血飮啄慰孤愁 내能히심통과피ᄅᆞᆯ빠내야마시며딕먹게ᄒᆞ야외로온시르믈慰勞ᄒᆞ리라 心以當竹實烱然忘外求血以當醴泉 豈徒比淸流 鳳이非竹實不食ᄒᆞ며非醴泉不飮ᄒᆞᄂᆞ니라○심통ᄋᆞ로ᄡᅥ댓여ᄅᆞᄅᆞᆯ當ᄒᆞ면번드기밧긧것求ᄒᆞ믈닛고피로ᄡᅥ醴泉을當ᄒᆞ면엇뎨ᄒᆞᆫ갓ᄆᆞᆯ근ᄒᆞ르ᄂᆞᆫ믈와ᄀᆞᄃᆞᆯᄲᅮᆫ니리오 所重王者瑞敢辭微命係 王者瑞ᄂᆞᆫ

掊鳳ᄒᆞ다甫ㅣ怒鳳雛之飢死ᄒᆞ야欲以心血로飮之而不愛微軀也ㅣ라休ᄂᆞᆫ謂死ㅣ니莊子애其死ㅣ若休ㅣ라ᄒᆞ다○重히너기ᄂᆞᆫ바ᄂᆞᆫ王者의祥瑞ㅣ구틔여죠고맛목숨의주그므로말리아

坐看綵翮長擧意八極周빗난놀개기러ᄠᅳᆺ들드러八極에두루ᄂᆞ로ᄆᆞᆯ안자셔보리라

自天銜瑞圖飛下十二樓圖以奉至尊鳳以垂鴻猷再光中興業一洗蒼生憂十二樓ᄂᆞᆫ仙人所居ㅣ라鴻猷ᄂᆞᆫ大道也ㅣ라○하ᄂᆞᆯ로브터뎌祥瑞로왼圖ᄅᆞᆯ므러열두樓에ᄂᆞ라ᄂᆞ리거든圖로ᄡᅥ님금ᄭᅴ받ᄌᆞᆸ고鳳ᄋᆞ로ᄡᅥ큰道理ᄅᆞᆯ드리워中興ᄒᆞ신王業을다시빗내야ᄒᆞᆫ번蒼生의시르믈셔스리라

滌

裏正爲此群盜何淹留 此ᄂᆞᆫ 事ㅣ 思見賢人ᄒᆞ야 以致治平之效也ㅣ라 ○기 ᄠᅳᆫ ᄆᆞᄋᆞᄆᆞᆫ 正히 이ᄅᆞᆯ 爲ᄒᆞ노니 믈盜賊이 어느 머므러시리오

朱鳳行 此詩ᄂᆞᆫ 衡州刺史陽濟請連帥之職ᄒᆞ야 討臧玠之亂故로 托朱鳳ᄒᆞ야 喩之ᄒᆞ니라

君不見瀟湘之山衡山高山巔朱鳳聲嗷嗷 그듸ᄂᆞᆫ 瀟湘뫼해 衡山이 노ᄑᆞ믈 보디 아니ᄒᆞᄂᆞᆫ다 뫼ㅅ 그텃 블근 鳳의 소리 嗷嗷ᄒᆞ놋다

側身長顧求其曹翅垂口噤心甚勞 모ᄆᆞᆯ 기우려 기리 도라보아 그 무를 求ᄒᆞᄂᆞ니 ᄂᆞᆯ개 드리고 이비 버므오 ᄆᆞᄋᆞ미 甚히 ᄀᆞᆺ바ᄒᆞ놋다 下

愍百鳥在羅網黃雀最小猶難逃此ᄂᆞᆫ喩兵興之際예小民이困於征役也ㅣ라○온갓새그므레거리디슈믈아래로어엿비너기ᄂᆞ니黃雀이안직져고ᄃᆡ오히려難히逃몯ᄒᆞ놋다願分竹實及螻蟻盡使鴟梟相怒號○鴟梟ᄂᆞᆫ惡鳥ㅣ니喩盜賊ᄒᆞ다願ᄒᆞᆫᄃᆞᆫ대여름과개염이를ᄂᆞᆫ화줄디니다鴟梟로ᄒᆡ여서르怒ᄒᆞ야우르게ᄒᆞ야리아

杜鵑

西川有杜鵑東川無杜鵑涪萬無杜鵑雲安有杜鵑西川엔杜鵑이잇고東川엔杜鵑업고涪萬앤杜鵑이업고雲安앤杜鵑이

잇도다 我昔遊錦城結廬錦水邊有竹一頃

餘喬木上參天 내녜錦城에노라錦水ㅅᄀᆞᄋᆡ지블지으니잇ᄂᆞᆫ대한이리미남고노ᄑᆞᆫ남기우호로하ᄂᆞᆯ해다핫더라 杜鵑暮春至哀哀叫

其間 杜鵑ㅣ暮春에니르러피그ᄉᆞ이예셔우더라 슓 我見常再拜

重是古帝魂 蜀人望帝死爲杜鵑ᄒᆞ니라。내보고샹녜두번곰절호니이녯님금넉슬重히너겨니라 生子百鳥巢百鳥不敢嗔仍

爲餧其子禮若奉至尊 온새이지비삿기를나하도온새구틔여미디몯ᄒᆞ고지조로爲ᄒᆞ야그삿기를머겨禮를님금밧ᄌᆞᆸ덧ᄒᆞ놋다 鴻鴈

羔羊有禮太古前行飛與跪乳識序又知恩

鴻鴈ᄋᆞᆫ 行飛而識序ᄒᆞ고 羔羊ᄋᆞᆫ 飮乳예 必
跪而知恩이니라 ○ 鴻鴈과 羔羊괘 ᄀᆞ장 녯

前브터 禮 잇ᄂᆞ니 行列ᄒᆞ야 ᄂᆞᆯ며 ᄭᅮ러 졋
머거 次序를 알며 在恩惠를 아ᄂᆞ니라 聖

賢古法則付與後世傳 聖賢이 녯 法을 後世
예브터 주어 傳ᄒᆞ시

니
라 君看禽鳥情猶解事杜鵑 言可以人而不
知君臣之禮乎

아 ○ 그듸ᄂᆞᆫ 새 즘ᄉᆡᆼ의 ᄠᅳ들 보라
오히려 杜鵑 셤규믈 아ᄂᆞ니라 今忽暮春

間値我病經年身病不能拜淚下如迸泉 이
제

믄ᄃᆞᆺ 暮春人ᄉᆞ이 예 내의 病이 ᄒᆡ 지나 몸만
나 모미 病ᄒᆞ야 能히 절ᄒᆞ지 몯ᄒᆞ고 눈믈흘

류믈서 맷믈솟ᄃᆞ서ᄒᆞ노라

杜鵑行

君不見昔日蜀天子化爲杜鵑似老烏 그듸ᄂᆞᆫ보디아니ᄒᆞᄂᆞᆫ다 昔日에 蜀ㅅ天子ㅣ 變化ᄒᆞ야 杜鵑이 ᄃᆞ외니 늘근 가마괴 곤도다

寄巢生子不自啄群烏至今爲哺雛 ᄂᆞᄆᆡ 기세 브텨 삿기를 나코 제 딕머기디 몯거든 믈새 이제니르리 爲ᄒᆞ야 삿기ᄅᆞᆯ 머기ᄂᆞ니다

雖同君臣有舊禮骨肉滿眼身羈孤 비록 君臣의 녯 禮 이슈미 곤ᄐᆞ나 骨肉이 누네 ᄀᆞ독ᄒᆞ얏고 모미 나그내 ᄃᆞ외야 외롭도다

業工竄伏

深樹裏四月五月偏號呼 제ᄒᆞᆫ논이리가ᄭᅳᆫ나못소배수머굼ᄯᅳ려斫을바지로이ᄒᆞᄂᆞ니四月五月에ᄀᆞ장우르ᄂᆞ다 其聲哀痛口流血所訴何事常區區 그소리슬히셟고이베피롤흘리ᄂᆞ니하논배므스이리완뒤샹녜區區ᄒᆞᄂᆞ니오 爾豈摧殘始發憤羞帶羽翮傷形愚 네엇뎨摧殘ᄒᆞ야셔아비루수메왓븐ᄆᆞᄋᆞ몰배프미아니리오지ᄂᆞᆯ帶ᄒᆞ야시믈븟그리며얼구릐어리믈슬노다 蒼天變化誰料得萬事反覆何所無萬事反覆何所無豈憶當殿群臣趨 프른하놀히變化호믈뉘혜아리리오萬事이두위힐후미여느고

대엽스리오萬事이두뷔힌후미어느고대엽스리오어느殿을當ᄒᆞ야잇거든群臣의趨走ᄒᆞ던이를ᄉᆞ랑ᄒᆞ리오

杜鵑行

古時杜宇稱望帝魂作杜鵑何微細 녯時節에杜宇를望帝라일ᄏᆞ더니넉시杜鵑을ᄃᆞ외니ᄌᆞ못微細ᄒᆞ도다

跳枝竄葉樹木中搶佯瞥捩雌隨雄 搶佯은疾飛皃ㅣ오瞥捩은悪回皃ㅣ라 ᄋᆞ나모가온ᄃᆡ셔가지예ᄲᅱ놀며닙페숨ᄂᆞ니搶佯瞥捩ᄒᆞ야암ᄃᆞ이수흘좃ᄂᆞ다

毛衣慘黑貌이憔悴衆鳥安肯相尊崇 터리슬피검고양ᄌᆡ

憔悴ᄒᆞ니 뭀새논 엇데 서르 尊崇ᄒᆞ리오 隨形不敢棲華屋短簷

唯顧巢深叢 열구리ᄒᆞ야 뎌 구틔여 빗난 지븨 棲止ᄒᆞ들 몯ᄒᆞ도소니 뎌 곧 ᄂᆞᆯ개ᄂᆞᆫ 오직 기픈 나모 ᄈᆞᆯ기예 깃ᄒᆞ고져 顧ᄒᆞ놋다 穿皮啄朽觜欲秃

苦飢始得食一蟲 나못 거프를 들우여 서근 될 디구메 부으리 무딜 ᄃᆞᆺᄒᆞ니 심히 주려 아ᄒᆞᆫ 벌어지ᄅᆞᆯ 머고ᄆᆞᆯ 비릇 ᄆᆞᆺ놋다 誰言養雛不自

哺此語亦足爲愚蒙 뉘 닐오ᄃᆡ 삿기 츄데 제 머기디 몯ᄒᆞᄂᆞ다 ᄒᆞᄂᆞ니오 이 말ᄉᆞ미 足히 어리도다 任 聲音咽咽如有謂號啼略

與嬰兒同 소리 수으워려 닐오미 잇ᄂᆞᆫ ᄃᆞᆺᄒᆞ니 우루미 뎌기 아ᄒᆡ와 다뭇 곧도

다口乾垂血轉迫促似欲上訴於蒼穹이비ᄆᆞᄅᆞ고피드려셔ᄀᆞ장비왓ᄇᆞ니우ᄒᆞ로하ᄂᆞᆯ긔할오져ᄒᆞᆫ듯도다蜀人聞之皆起立至今數學傳遺風蜀人사ᄅᆞ미듯고다니러셔ᄂᆞ니이제니르리ᄀᆞᄅᆞ치며비화기튼風俗이傳ᄒᆞ야오ᄂᆞ다廼知變化不可窮豈思昔日居深宮嬪嬙左右如花紅變化ᄒᆞ미다ᄋᆞᆷ업수믈알리로소니녯나래기픈宮의살어든嬪嬙이左右에블근곳ᄀᆞ토믈어ᄂᆞᄉᆞ랑ᄒᆞ리오

義鶻行

陰崖有蒼鷹養子黑栢巓어득ᄒᆞᆫ 비례예 프른매 잇ᄂᆞ니 거믄 잣나못 그뎨 삿기ᄅᆞᆯ 치놋다

白蛇登其巢呑噬恣朝飡ᄒᆡᆫ ᄇᆡ야미 그 기세 올아 솜ᄭᅧ 며너ᄒᆞ러 아ᄎᆞᆷ 머구믈 ᄀᆞ장ᄒᆞᄂᆞ니라

雄飛遠求食雌者鳴辛酸수ᄒᆞᆫ ᄂᆞ라 머리 바ᄇᆞᆯ 求ᄒᆞ거늘 암히 무루믈 슬피ᄒᆞ더라

力强不可制黃口無半存禽鳥之雛ㅣ 口吻이 다 黃ᄒᆞ니라 ○ ᄇᆡ야미 히미 세여 可히 잡쥐돌 몯ᄒᆞᄂᆞ니 누른 이비 半도 잇디 몯ᄒᆞ니라

其父從西歸翻身入長煙斯須領健鶻痛憤寄所宣그아비 西ㅅ녀그로브터 와 모몰 드위텨 긴 닛서리로 드러가 아니한 더데 健壯ᄒᆞᆫ 鶻ᄋᆞᆯ 더브

러와셜우여애완본ᄆᆞ옴펼바롤보티니라 斗上捩孤影嗷哮來
九天 此ᄂᆞᆫ言鶻의飛來之狀ᄒᆞ다○과ᄀᆞ우희셔외로왼그르메롤ᄃᆞ위텨울어하
ᄂᆞᆯ로셔ᄂᆞ려오니라 脩鱗脫遠枝巨顙折老拳 脩鱗巨顙ᄋᆞᆫ言
蛇ᄒᆞ고老拳ᄋᆞᆫ言鶻ᄒᆞ다○긴비ᄂᆞ리먼가지예셔버서디니큰니마히늘근주머귀예
벼디니라 高空得蹭蹬短草辭蜿蜒 蹭蹬은失勢皃ㅣ라○노
ᄑᆞᆫ虛空애셔蹭蹬호ᄆᆞᆯ어드니뎌른프레구믈어류믈마도다 折尾能一掉
飽腸已皆穿 것근꼬리롤能히ᄒᆞᆫ번뻘티니브르게머근애는ᄒᆞ마다
들워디도다 生雖滅衆雛死亦垂千年 사라셔비록여러삿

기로滅ᄒᆞ나주거도任千年을드려가리로다物情有報復快意貴

目前萬物의ᄠᅳ디가ᄑᆞ미잇ᄂᆞ니ᄠᅳ들快히ᄒᆞ믈눈알ᄑᆡ셔ᄒᆞ미貴ᄒᆞ니라玆

實鷙鳥最惡難心炯然이ᄂᆞᆫ眞實로모ᄃᆞᆫ새거ᄀᆡ안ᄃᆡᆨᄒᆞᆫ거시니

어려우믈ᄇᆞᆯ리救ᄒᆞᆫᄂᆞᆫᄆᆞᄋᆞ미ᄇᆞᆰ도다功成失所在用捨何其

賢言鶻ㅣ旣殪蛇ᄒᆞ고不求報德而即飛去也ㅣ니라○功을일우고잇ᄂᆞᆫᄃᆡᄅᆞᆯ일토

소니ᄡᅳ여말오미ᄌᆞ모ᄂᆡ디도다近經潏水湄此事樵夫傳

近間애潏水ㅅᄀᆞᅀᆡ로디나오다니이이ᄅᆞᆯ나모ᄇᆡᆯ사ᄅᆞ미니ᄅᆞ더라飄蕭覺

素髮凜欲衝儒冠古詩예怒髮이上衝冠ㅣ라ᄒᆞ다○셔늘히하여ᄒᆞᆫ

헌머리더러리주븟ᄒᆞ야셧ᄂᆞᆫ곳가ᄅᆞᆯ다ᄃᆞᆯ오ᄆᆞᆯ아로라 人生許與分亦在顧眄間言人之救難이亦貴在眼前之速이니라○사ᄅᆞᆷ사로매許與ᄒᆞᄂᆞᆫ義分도在도라보ᄂᆞᆫᄉᆞ이예이숄디니라 聊為義鶻行永激壯士肝義鶻行을디어기리壯士의애ᄅᆞᆯ激發히노라

呀鶻行

病鶻卑飛俗眼醜每夜江邊宿衰柳病ᄒᆞᆫ鶻이ᄂᆞᄌᆞ기ᄂᆞ라俗人의눈에더러이너기ᄂᆞ니밤마다ᄀᆞᄅᆞᇝᄀᆞ이늘근버드네셔자ᄂᆞ다 清秋落日已側身過鴈飛鴉錯回首믈ᄀᆞᆫ디ᄂᆞᆫ나래

ᄒᆞ마 모ᄅᆞᆯ 기우려 디나ᄂᆞᆫ 고려기와 가ᄂᆞᆫ 가마괴예 외오 머리ᄅᆞᆯ 도로혀 보ᄂᆞ다

鬉、腦雄姿迷所向 踈翮稀毛不可壯 鬉悪ᄒᆞᆫ頭腦와 雄壯ᄒᆞᆫ 양ᄌᆞ로 갈 바ᄅᆞᆯ 이위ᄒᆞ、노소니 섯권 ᄂᆞ、래와 드믄 터리 粃치 몯ᄒᆞ도다

強神迷復皂鵰前 俊材早在蒼鷹上 精神을 고돌파 도거믄 수리 알ᄑᆡ 뒤도라 가ᄆᆞᆯ 迷失ᄒᆞ、ᄂᆞ니 俊傑ᄒᆞᆫ 材質은 일 프른 매우희 잇더니라

風濤颯颯寒山陰 熊羆欲蟄龍蛇深 念爾此時有一擲 失聲濺血非其心 ᄇᆞ、ᄅᆞ、매 ᄆᆞᆳ겨리 서늘ᄒᆞ、고 치운 뫼히 어드워고ㅣ 蟄藏ᄒᆞ、곡 龍蛇ㅣ 기피 들어돈 너를 이 ᄢᅴ ᄒᆞᆫ 번 더뎌 늘요ᄆᆞᆯ ᄉᆞ랑ᄒᆞ、노니 소리ᄅᆞᆯ 일코 피글

ᄡᅳ료ᄆᆞᆫ 그ᄆᆞᄋᆞ、미 아니로다

王兵馬使二角鷹

悲臺蕭瑟石巃嵸哀壑杈枒浩呼洶 巃은 力空切ᄒᆞ고 嵸은 祖動切 高大貌ㅣ라 杈枒ᄂᆞᆫ 不齊貌ㅣ라 洶은 水聲이라 ○ ᄂᆞᆯ픈 臺이 서늘ᄒᆞ고 돌히 巃嵸ᄒᆞ고 ᄂᆞᆯ폰 묏고ᄅᆡ 杈枒ᄒᆞ야 해모리 우르놋다 中有萬里之

長江迴風陏日孤光動 已上四句ᄂᆞᆫ 言夔峽間風景ᄒᆞ야 述角鷹之所出ᄒᆞ니라 ○ 가온ᄃᆡ 萬里ㅅ긴 ᄀᆞᄅᆞ미 잇ᄂᆞ니 회로리ᄇᆞᄅᆞ미 히ᄅᆞᆯ ᄀᆞ리뎌 외ᄅᆞ왼 비치 뮈놋다 角鷹翻倒壯士臂將軍玉帳軒勇氣

將軍은 指王兵馬也ㅣ라 ○ ᄲᅧᆯ가딘 매 壯士
이 볼히셔 두위잇ᄂᆞ니 將軍ㅅ 玉帳대 勇猛
ᄒᆞᆫ 氣運이 軒
昂ᄒᆞ도다

二鷹猛腦絛徐墜目如愁胡視天地 以眼碧으로 言之ᄒᆞ다 ○ 두 매의 모딘
頭腦예 미온 노히 날회여 드리웟ᄂᆞ니
누ᄂᆞᆫ 시름ᄒᆞᄂᆞᆫ 되 하ᄂᆞᆯ
과 ᄯᅡ과ᄅᆞᆯ 보ᄂᆞᆫ ᄃᆞᆺ도다

杉鷄竹兔不自惜谿虎野羊俱辟易 杉鷄ᄂᆞᆫ 黃冠青綬니 常在杉
樹下ᄒᆞ고 竹兔ᄂᆞᆫ 小如野兔
ᄒᆞ니 食竹葉이니라 辟易은 므르ᄃᆞᄅᆞᆯ시라
○ 杉鷄와 竹兔왜 제 모ᄆᆞᆯ 앗기디 몯ᄒᆞ노소
니 샷기 범과 미햇 羊
이 다 므르ᄃᆞᆮ다

韝上鋒稜十二翮將軍勇銳與之敵 버러우희 갌ᄂᆞᆯ 곧ᄒᆞᆫ 열두 ᄂᆞᆯ
갯지치여 將軍이 勇猛ᄒᆞ다ᄂᆞᆯ

남과 다ᄆᆞᆺᄀᆞᆯ오리로다

將軍樹勳起安西崐崙虞泉入馬蹄 安西崑崙虞泉은 皆在西ᄒᆞ니라 ○ 將軍ㅣ 功勳을 셰여 安西에셔 니러나니 崐崙과 虞泉애 ᄆᆞᆯ바래 드러 ᄇᆞᆯ이니라

白羽曾肉三狻猊敢決豈不與之齊 白羽ᄂᆞᆫ 箭也ㅣ라 狻猊ᄂᆞᆫ 即師子ㅣ니 食虎豹ᄒᆞᄂᆞ니라 言將軍敢決之氣似狻猊也ㅣ라 ○ 白羽箭으로 일즉 세 狻猊의 고기ᄅᆞᆯ 자바 머그니 敢決ᄒᆞ요ᄆᆞᆫ 엇뎨 다ᄆᆞᆺᄀᆞᆯ디 아니ᄒᆞ리오

荊南芮公得將軍亦如角鷹下翔雲 荊南人 芮公ㅣ 將軍을 어드니 ᄯᅩ ᄲᅳᆯ가ᄐᆞᆫ 매 구루메 ᄂᆞ려 ᄂᆞᄂᆞᆫ ᄃᆞᆺ도다

惡鳥飛飛啄金屋安得爾曹開其群驅出

六合梟鸞分 惡鳥이 豕金星은 喻安史ㅣ 陷京師ᄒᆞ다 爾曹ᄂᆞᆫ 指角鷹ᄒᆞ니 此ᄂᆞᆫ 甫ㅣ 欲得王將軍ᄒᆞ야 驅賊而使君子小人으로 分也ㅣ라 ○모딘새ᄂᆞ라 金星은 디ᄂᆞ니 엇뎨 네 무를 어더 그 새 무를 여러 六合애 모라내 조차 梟와 鸞과로 ᄂᆞᆫ호려뇨

見王監兵馬使ᄒᆞ니 說近山애 有白黑二鷹ᄒᆞ니 羅者ㅣ 久取호ᄃᆡ 竟未能得ᄒᆞᄂᆞ다 王이 以爲毛骨이 有異他鷹ᄒᆞ니 恐臘後春生이어든 騫飛避暖이면 勁翮思秋之甚이라 眇不可見일가ᄒᆞ야 請余賦詩二首ᄒᆞᄂᆞ다

雲飛玉立盡清秋不惜奇毛恣遠遊구루미ᄂᆞᆫᄃᆞᆺᄒᆞ며玉이션ᄃᆞᆺᄒᆞ야몰고ᄀᆞ올히다ᄋᆞᄃᆞ록잇ᄂᆞ니奇異ᄒᆞᆫ깃촐앗기지아니ᄒᆞ야머리와노로몰放恣히ᄒᆞᄂᆞ다在野只教心力破千人何事網羅求ᄆᆡ해이셔셔오직히여사ᄅᆞᆷ의心力으로헐에ᄒᆞᄂᆞ니사ᄅᆞᆷ미게ᄃᆞ犯ᄒᆞ미ᄆᆞ숫이리어놀그믈로求ᄒᆞᄂᆞ니오一生自獵知無敵百中爭能恥下韝一生애제獵ᄒᆞ믈ᄀᆞᆯ오리업소ᄆᆞᆯ아노니온번마치ᄆᆞ로能ᄋᆞᆯᄃᆞ토논디라버려ᄂᆞᆫ려안조ᄆᆞᆯ븟그리ᄂᆞᆺ다鵬礙九天須却避兔經三窟莫深憂言鵬이大而在高ᄒᆞᆯ서須避鷹擊이어니와兔入三穴ᄒᆞᄂᆞ니可

以無憂ㅣ니라○鵬鳥ᄂᆞᆫ하ᄂᆞᆯ고려실시 모로매도로혀避ᄒᆞᆯ디어니와돗기ᄂᆞᆫ세ᄇᆞᆫ ᄀᆞᆷ기디나ᄃᆞ러실서기 ᄢᅵ시름아니ᄒᆞ놋다

黑鷹不省人間有度海疑從北極來 거믄매ᄂᆞᆫ人間 매이슈을ᄉᆞᆯ피디몯ᄒᆞ리로소니바ᄅᆞᄅᆞᆯ 건너北極으로브터온가疑心ᄒᆞ노라

正翮搏風超紫塞玄冬幾夜宿陽臺 秦築長城ᄒᆞ니土色 이皆紫ᄒᆞᆯ시謂之紫塞라○놀개ᄅᆞᆯ고텨ᄇᆞ ᄅᆞ매ᄂᆞ라紫塞ᄅᆞᆯ건너오니玄冬애몃바ᄆᆞᆯ 陽臺예셔 자거뇨

虞羅自各虛施巧春鴈同歸必見猜 虞人이그므를스싀로제여곰虛히工巧 ᄒᆞ몰펴노소니보미그려기와ᄒᆞᆷ쁴가면

반ᄃᆞ시 나ᄎᆡ로ᄆᆞᆯ 보리라

萬里寒空秖一日金眸玉爪不凡材 萬里ㅅ 치윤 虛空애 오직 ᄒᆞᄅᆞᆯ 가리로소니 金 ᄀᆞᆮᄒᆞᆫ 눈과 玉 ᄀᆞᆮᄒᆞᆫ 바토비 샹녜ᄅᆞ윈 材質이 아니로다

催宗文樹鷄柵

吾衰怯行邁旅次展崩迫 내 늘거 녀ᄃᆞ뇨ᄆᆞᆯ 젼노니 나그내로 머므러 슈매 닶가온 ᄠᅳ들 펴노라

愈風傳烏鷄秋卵方漫喫 ᄇᆞᄅᆞᆺ病 됴호ᄆᆞᆯ 거믄 ᄃᆞᆯ기라 傳ᄒᆞᄂᆞ니 ᄀᆞᅀᆞᆳ 알ᄒᆞᆯ 뵈야ᄒᆞ로 ᄒᆞᆫ갓 머노라

自春生成者隨毋向百翮 보ᄆᆞ로브터 나 이럿노 거시 어미ᄅᆞᆯ 조차ᄃᆞᆫ니

니 一百이 向ᄒᆞ야 가ᄂᆞ다 驅趂制不禁喧呼山腰宅 모라 ᄠᅩ차

도 制禦호ᄆᆞᆯ 이긔디 몯ᄒᆞ리로소니 뫼허릿 지븨셔 우르ᄂᆞ다 課奴殺青竹

終日憎赤幘 赤幘은 雄鷄冠也ㅣ라 죵ᄋᆞᆯ 課察ᄒᆞ야 프른 대ᄅᆞᆯ 버흐니 ᄂᆡ

리 ᄆᆞᆺ도록 블근 머리 가진 ᄃᆞᆯᄀᆞᆯ 믜여ᄒᆞ노라 踏藉盤案翻塞蹊使

之隔 이ᄂᆞᆫ 돌기ᄒᆞᆯ ᄀᆞᆯ허뷔여 길흘 메울시라 ᄋᆞ 盤과 案과ᄅᆞᆯ ᄇᆞᆯ와 두위티고 길흘 마

가히여곰 주음 ᄎᆞ 베ᄒᆞᄂᆞ다 墻東有隙地可以樹高柵 東담

녀킈 ᄇᆞᆫ다히 잇ᄂᆞ니 可히 노ᄑᆞᆫ 木柵을 셰리로다 避熱時來歸問兒

所爲跡 더위ᄅᆞᆯ 수머 時로 와셔 아히ᄒᆞ논 맛이ᄅᆞᆯ 묻노라 織籠曹其

內令入不得擲籠올ᄡᅡ그안해돌가무리잇게ᄒᆞ야히여드려시러곰ᄢᅧ여나디몯게ᄒᆞ라稀闊可突過嘴距還汚席ᄃᆞ믄ᄉᆞ이로可히헤디러나면부리와바톱괘도로혀돗글더레이리라我覺螻蟻遭彼免狐貉厄言籠柵은無間隙則은螻蟻不遭鷄之啄이오鷄亦免狐貉이所害니라○나는개야미만나몰어위키ᄒᆞ고ᄃᆞᆯ는여ᄋᆞ와믈희厄을免ᄒᆞ리라應宜

各長幼自此均勍敵勍敵은鬪鷄ᄅᆞᆯ니ᄅᆞ니라○당당이졔여곰조라니와져므니왜맛당히ᄃᆞ외야일로브터센비편미골오ᄃᆞ외리라籠柵念有修近身見損益言以柵鷄之事로近譬人身이면損益之理亦然ᄒᆞ

니라○龍柵修理ᄒᆞ믈ᄉ랑ᄒᆞ니 모개라갓가이損益을보리로다 明明領處

分一一當剖析 言宋文이宜領吾의處分ᄒᆞ 야割斷分析ᄒᆞ야以咸其柵

이니라○볼가리결ᄒᆞ몰마라 셔一一히반ᄃᆞ시剖析ᄒᆞ라 不昧風雨晨

亂離減憂慼 ᄇᆞᄅᆞᆷ비오ᄂᆞᆫ새배도우루믈아 졸히아니ᄒᆞ야亂離예내지르

믈더ᄂᆞ 니라 其流即凡鳥其氣心匪石 心匪石은 言不失司

晨也ㅣ라○그무른샹녯새나그氣運 믄ᄆᆞᄋᆞ미돌ᄀᆞ티미혹디아니ᄒᆞ니라 倚賴

窮歲晏撥煩去冰釋 돌골倚賴ᄒᆞ야셔히ᄂᆞ 주믈窮盡ᄒᆞ노니더즈

러운시르믈ᄲᅥ혀엳게 ᄒᆞ리믈어름녹ᄃᆞᆺᄒᆞᄂᆞ다 未似尸鄉翁拘留盖

阡陌祝雞翁이居尸鄉山下ᄒᆞ야養雞千餘
ᄒᆞ니라○尸鄉人한아비자바두어길
흘두굣게홈곤
디아니ᄒᆞ니라

縛雞行

小奴縛雞向市賣雞被縛急相喧争죠고맛
죵이ᄃᆞᆯ
ᄀᆞᆯ미야져제ᄅᆞᆯ尙ᄒᆞ야ᄑᆞ로리라거ᄂᆞᆯᄃᆞᆯ
긔ᄉᆡᆯ리ᄆᆡ요ᄆᆞᆯ니버서르울어리사ᄒᆞᄂᆞ다
家中厭雞食蟲蟻不知雞賣還遭烹집안해셔
ᄃᆞᆯ기별어
지와개야미와어구믈마쳔고ᄃᆞᆯ기ᄑᆞᆯ여
도로혀ᅀᆞᆯ모ᄆᆞᆯ맛날고ᄃᆞᆯ아디몯ᄒᆞ라
蟲雞於人何厚薄吾叱奴人解其縛벌에지와
ᄃᆞᆰ괘사ᄅᆞ

믜게어늬돌겨오며열무리오내좁을구솜ᄒᆞ야ᄆᆞ욷거ᄂᆞᆯ글ᄃᆞ라 **雞蟲得失**

無了時注目寒江倚山閣 言愛蟲則害雞오愛雞則害蟲ᄒᆞ야其得失이無窮也ㅣ라○ᄃᆞᆰ과벌에得ᄒᆞ며失ᄒᆞ미ᄆᆞᄎᆞᆯ저기업스니치운ᄆᆞᄅᆞ내누ᄂᆞᆯ쌀가보고뫼지븨비겨슈라

、雞

紀德名標五初鳴度必三 雞ㅣ首戴冠이文也ㅣ오足持距ㅣ武也ㅣ오見敵而鬪ㅣ勇也ㅣ오得食相呼ㅣ義也ㅣ오鳴不失時ㅣ信也ㅣ라○德을紀錄ᄒᆞ매일후믈다ᄉᆞᆺ가지ᄅᆞᆯ標ᄒᆞᄂᆞ니처ᅀᅥᆷ울저그度數ᄅᆞᆯ반ᄃᆞ기세번ᄒᆞᄂᆞ니라 **殊**

方聽有異失次曉無慙 夔峽이 非甫의 故鄕故로 稱殊方이라○ 다ᄅᆞᆫ ᄯᅡ해와 두루미 다ᄅᆞ니 次第ᄅᆞᆯ 일코 새배 붓그류미 업도다

問俗人情似充庵爾輩堪 言可充庵廚之饌也ㅣ라○ 風俗ᄋᆞᆯ 무루니 사ᄅᆞᄆᆡ ᄠᅳ디 ᄀᆞᄐᆞ니 브어베 몌오ᄆᆞᆫ디 희 무를 ᄒᆞ얌즉ᄒᆞ도다

氣交亭育際巫峽漏司南 亭育ᄋᆞᆫ 造化를 니ᄅᆞ다○ 氣運기 亭育ᄉᆞ이예 섯것ᄂᆞ니 巫峽入漏刻ᄒᆞᄂᆞᆫ 마ᅀᆞᆳ 南의 쉬우놋다

、歸鷰

不獨避霜雪其如儔侶稀 ᄒᆞᆫ갓 서리와 눈과ᄅᆞᆯ 避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그 버디 ᄃᆞ므로 매 엇뎨 ᄒᆞ리오 四時無失序八月自知歸時예 節序를 일티 아니ᄒᆞ야 八月에 제 가ᄆᆞᆯ 아ᄂᆞᆺ다 春色豈相訪衆雛

還識機言來春에 又至也ㅣ라 ᄆᆞᆷ 비체 엇뎨 서르 보디 아니ᄒᆞ리오 여러 삿기 도로 허ᄌᆞ 가 ᄀᆞᆯ아 ᄂᆞᆺ다 故巢尙未毀會傍主人飛ᄂᆞᆯ근 기슬

萬一에 허디 아니ᄒᆞ면 오로매 主人을 바라 ᄂᆞᆯ리라

燕子來ᄂᆞᆯ어舟中作이라

湖南爲客動經春燕子銜泥兩度新湖南애 나그내 ᄃᆞ외야 신다마다 보ᄆᆞᆯ 디내요니 져비 ᄒᆞᆰ 므러 두 버늘 새롭도다 舊入故園

嘗識主如今社日遠看人 녜 故園에 드리일즉 님자혼이더니 이제 社日에 머리 와 사ᄅᆞ몰 보ᄂᆞ다 可憐處處巢居室何異飄飄託此身 言甫之託身於此ㅣ與燕之來巢로 無異也ㅣ라○可히 슬프다 곧마다 사ᄂᆞᆫ 지븨와 ᄀᆞᆺᄒᆞᄂᆞ니 飄飄히 이 모몰 브터 슘괴어 ᄂᆞ다ᄅᆞ됴 暫語船檣還起去穿花落水益霑巾 잠간 빗대예셔 말ᄒᆞ고 도로 니러 가 고졷들 위 므래 ᄠᅥ어놀 더옥 ᄂᆞᆫ므를 手巾에 저지노라

、雙燕

旅食驚雙燕嘝泥入此堂 나그내ᄃᆞ외야셔 밥머구메 두져비

외ᄒᆞᆰ므러이지븨ᄃᆞ러오ᄆᆞᆯ놀라노라 應同避燥濕且復過炎涼 당당이사ᄅᆞ미ᄆᆞᄅᆞᆫᄃᆡ즌ᄃᆡ避호미ᄀᆞᆮ도소니ᄯᅩ더위와치위ᄅᆞᆯ지내리로다 養子風塵際來時道路長 風塵ㅅᄀᆞ애삿기치ᄂᆞ니올저긔길히기도다 今秋天地在吾亦離殊方 言甫ㅣ當秋ᄒᆞ야去此地而歸故鄕을亦如燕之歸也ㅣ라○이ᄀᆞᅀᆞᆯ히하ᄂᆞᆯ콰ᄯᅡ콰ᄉᆞ이예이시면나도ᄯᅩ다ᄅᆞᆫᄯᅡᄒᆞᆯ벙으리와도리라

、鸚鵡

鸚鵡含愁思聰明憶別離 鸚鵡ㅣ시름ᄒᆞ왼ᄠᅳ들머굼ᄂᆞ니聰

明ᄒᆞ야 제ᄯᅡ여희여 슈믈ᄉᆞ랑ᄒᆞ놋다 翠衿渾短盡 紅觜謾多知 ᄑᆞ른기지다뎌러업스니블근부리속졀업시하아놋다 未有開籠日 空殘宿舊枝 籠ᄋᆞᆯ열나리잇디아니토소니 네자던가지ᄒᆞᆫ갓衰殘ᄒᆞ얫도다 世人憐復損 何用羽毛奇 世옛사ᄅᆞ미ᄉᆞ랑ᄒᆞᄃᆡ도로ᄒᆞ야ᄇᆞ리ᄂᆞ니므슴지최奇異호몰ᄡᅳ리오

、子規

峽裏雲安縣 江樓翼瓦齊 峽ㅅ안햇雲安ㅅᄀᆞ올ᄒᆡᄀᆞᄅᆞᇝ樓에편ᄂᆞᆫ디새ᄀᆞ죽ᄒᆞ도다 兩邊山木合 終日子規啼 두ᄀᆞ애묏

남기모닷ᄂᆞ니나리못도록子規ㅣ우ᄂᆞ다 眇眇春風見蕭蕭夜

色悽 아ᄋᆞ라히봀ᄇᆞᄅᆞ매보리로소니蕭蕭히밤비치서늘ᄒᆞ도다 客愁那

聽此故作傍人低 나그내시르메엿뎨이ᄅᆞᆯ듣가니오ᄇᆞ러사ᄅᆞᆷᄆᆞᆯ브

터ᄂᆞ쟉ᄒᆞᆫ울짓ᄂᆞ다

、百舌

百舌來何處重重祇報春 百舌새ᄂᆞᆫ어드러셔오ᄂᆞ니오여러ᄇᆞᆯ러

우러오직보ᄆᆞᆯ알외ᄂᆞ다 知音兼衆語整翮豈多身 소리ᄅᆞᆯ알

시여러가짓말ᄊᆞᄆᆞᆯ兼ᄒᆞᄂᆞ니ᄂᆞᆯ개ᄅᆞᆯ고툐ᄆᆞᆯ엇뎨모ᄆᆞᆯ重히너규미아니리오 花

密藏難見枝高聽轉新 고지 칙칙ᄒᆞ니 갈마보미 어렵고 가지 노ᄑᆞ니 듣지ᄀᆞ장 새롭도다 過時如發口君側有讒人 百舌이 春囀夏止ᄒᆞᄂᆞ니 月令에 芒種後에 反舌이 有聲ᄒᆞ면 讒人이 在側이라ᄒᆞ다ᄋᆞ 時節이 디나ᄃᆞ록 萬一 메 소리ᄅᆞᆯ 내면 님굼겨틔 하ᄉᆞᆺ그릴사ᄅᆞᆷ이 잇ᄂᆞ니라

白鳧行

君不見黃鵠高於五尺童化爲白鳧似老翁 此篇은 甫ㅣ 自喩之作이니 上句ᄂᆞᆫ 言少時ᄒᆞ고 下句ᄂᆞᆫ 言衰老ᄒᆞ다ᄋᆞ 그듸ᄂᆞᆫ 보지아니ᄒᆞᄂᆞᆫ다 黃鵠이 대자만ᄒᆞᆫ 아ᄒᆡ 킈예 놉더니 變化ᄒᆞ야 힌올히 ᄃᆞ외내 늘근 한아비 ᄀᆞᆺ

도다

故畦遺穗已蕩盡天寒歲暮波濤中녜ㅅ이러멧

기르멧 이사기 ᄒᆞ마 蕩盡ᄒᆞ니 하ᄂᆞᆯ히 칩고 ᄒᆡ 져믈어ᄂᆞᆯ 믌결 가온ᄃᆡ 잇도다

鱗介腥膻素不食終日忍飢西復東此ᄂᆞᆫ比不食不義之祿ᄒᆞ다○비ᄂᆞᆯ와 당아리 가진 비뉘ᄒᆞ고 기ᄂᆞᆫ 본ᄃᆡ 먹지 아니ᄒᆞᄂᆞ니 ᄂᆞ리 ᄆᆞᆺᄃᆞ록 주류믈 ᄎᆞ마 西ᄅᆞ 가락 ᄯᅩ 東ᄋᆞ로 오ᄂᆞ다

魯門鵁鶄亦蹭蹬聞道如今猶避風鵁鶄ᄂᆞᆫ海鳥ㅣ니避風ᄒᆞ야止於魯國人東門ᄒᆞ니라此ᄂᆞᆫ比避亂ᄒᆞ다○魯國ㅅ門에 鵁鶄이 ᄯᅩ 蹭蹬ᄒᆞ니 니ᄅᆞ거늘 드로니 이제 오히려 ᄇᆞᄅᆞ믈 避ᄒᆞ놋다

ㆍ歸鴈二首

萬里衡陽鴈今年又北歸 萬里ㅅ衡陽앳그려기올희또北으로가놋다

雙雙瞻客上一一背人飛 雙雙히나그내보고올마가고낫나치사ᄅᆞ몰뒤도라ᄂᆞ라가놋다

雲裏相呼疾沙邊自宿稀 ᄀᆞ룸소개서르브로미ᄲᅡᄅᆞ니몰앳ᄀᆞ애제자미드므도다

繫書無浪語愁寂故山薇 繫書ᄂᆞᆫ用蘇武의鴈足書事ᄒᆞ다○바래미야보내욜글워른쇽졀업슨마리업스니故鄕뫼햇고사리시름도외얫거니라ᄒᆞ노라

欲雪違胡地先花別楚雲 누니오고져거늘됫ᄯᅡ홀ᄇᆞ리고ᄭᅩᆺ더나고지라와몬져楚ㅅ구루믈여희놋다

却過清渭影高起洞

庭群 도로몰곤渭水로디나가ᄂᆞᆫ그르메로 소니노피洞庭에셔니버가ᄂᆞᆫ무리로다

塞北春陰暮江南日色曛 邊塞ㅅ北녀긘봆어득ᄒᆞ나조ᄒᆡ도ᄀᆞᄅᆞᆳ南녀긘힛 비치어득ᄒᆞ도다

傷弓流落羽行斷不堪聞 화ᄅᆞᆯ슬허ᄒᆞᄂᆞᆫ며ᄅᆞ딧ᄂᆞᆫ지치여行列이그츠니드ᄅᆞᆷ직디아니ᄒᆞ도다

、歸鴈

聞道今春鴈南歸自廣州 니ᄅᆞ거늘드로니올보ᄆᆡ그려기南녀그로셔도라오ᄆᆞᆯ廣州로브테로다

見花辭漲海避雪到羅浮 漲海ᄂᆞᆫ海名이오羅浮ᄂᆞᆫ山名이니皆在南方ᄒᆞ다○고ᄌᆞᆯ보고漲海ᄅᆞᆯ여희ᄂᆞ니

누는 避ᄒᆞ야 羅浮에 왓더니라 是物關兵氣何時免客愁 이거시 兵氣에 關係ᄒᆞ니 어느제 나그내 시르믈 免ᄒᆞ려뇨 年年霜露隔不過五湖秋 ᄒᆡ마다 霜露로 즈음쳐 ᄃᆞᆫ닐ᄉᆡ 五湖ᄀᆞᄋᆞᆯᄒᆞᆯ 디나가디 아니ᄒᆞᄂᆞ니라

、孤雁

孤雁不飮啄飛鳴聲念群 외로온 그려기 믈 마시며 딕먹디 아니ᄒᆞ고 ᄂᆞ라셔 우ᄂᆞᆫ 소리 제 무를 念ᄒᆞ놋다 誰憐一片影相失萬重雲 ᄒᆞᆫ 片ㅅ 그르메 萬重인 구루메셔 일히유믈 뉘 어엿비 너기리오 望盡

似猶見哀多如更聞 바라오매다업소더오히려보논ᄃᆞᆺᄒᆞ고슬픈

소리하니다시듣논ᄃᆞᆺᄒᆞ도다 野鷄無意緖鳴噪自紛紛 ᄆᆡ햇가마괴ᄂᆞᆫᄠᅳ디업스니우러수우미제어즈럽도다

歸鴈

春來萬里客亂定幾年歸 보미왯ᄂᆞᆫ萬里옛나그내ᄂᆞᆫ亂이굿거든어느ᄒᆡ예도라가려뇨

腸斷江城鴈高高正北飛 江城에그려기노ᄑᆡ正히北으로ᄂᆞ라가매애ᄅᆞᆯ굿노라

官池春鴈二首

自古稻粱多不足至今鷄鶩亂爲群 녜로브터 稻粱이해足디몯ᄒᆞ니이제니르리ᄃᆞᆰ ᄃᆞᆰ과ᄒᆞ야어즈러이물ᄒᆞ얏도다

且倚悵望看春水更恐歸飛隔暮雲 늘허ᄇᆞ라녀ᄇᆞᆷ므를보디말라ᄂᆞ라가나죗구루메즈음ᄎᆞᆯ가다시전노라

青春欲盡急還鄉紫塞寧論尚有霜 프른보미다아가거늘ᄲᆞᆯ리本鄉으로도라가ᄂᆞ니블근ᄀᆞ애오히려서리이슈믈엇뎨議論ᄒᆞ리오

翅在雲天終不遠力微矰繳絶須防 늘개구룸낀하늘해이슈미ᄆᆞᄎᆞ매머디아니ᄒᆞ리로소니히미겨그니줄사ᄅᆞᆯᄀᆞ장모로매막ᄌᆞᄅᆞᆯ라

舟前小鵝兒

鵝兒黃似酒對酒愛新鵝 올히삿기누러호미술빗ᄀᆞᄐᆞ니수를對ᄒᆞ야셔새올히ᄅᆞᆯᄉᆞ랑ᄒᆞ노라

引頸嗔船逼無行亂眼多 모ᄀᆞᆯ느리혀ᄇᆡ다와다오ᄆᆞᆯ믜여ᄒᆞᄂᆞ니行列이업서누네어즈러우미하도다

翅開遭宿雨力小困滄波 ᄂᆞᆯ개펴시니밤잔비ᄅᆞᆯ맛나고히미져그니믌겨레困ᄒᆞ얫도다

客散層城暮狐狸奈若何 손흐러거든層層인城ㅅ나조ᄒᆡ여ᅀᆞᄉᆞᆯᄀᆡ네게엇뎨ᄒᆞ려뇨

得房公池鵝 房琯이爲漢州刺史ᄒᆞ야鑿城西池ᄒᆞ니라

房相西亭鵝一群眠沙泛浦白於雲 房相의 西ㅅ녁

亭子앳 올히 ᄒᆞᆫ 무리여 몰애예셔 ᄌᆞ올며 ᄀᆞᆺ 믈레 ᄠᅥ시니 구루미라와 히도다

鳳凰池上應回首為報籠隨王右軍 上句ᄂᆞᆫ 言房琯이 在鳳池

而回望此鵝也ㅣ라 王羲之為山陰道士ᄒᆞ야 寫道經ᄒᆞ고 籠鵝而去ᄒᆞ니 此ᄂᆞᆫ 言甫ㅣ

欲效右軍也ㅣ라 ○ 鳳凰ㅅ 못 우희 셔 당당이 머리를 돌어 보리라니 籠이 녀허 王右軍

을 조차 가ᄂᆞ다 為ᄒᆞ야 알외노라

、鸂鶒

故使籠寬織須知動損毛 부러 ᄒᆞ여 籠올 어위에 ᄧᆞ니 몸 뒤우

메더리ᄒᆞ야 듀믈 모로매 아도다

看雲莫悵望 失水任呼號

구루믈 보고 ᄉᆞᆯ혀 ᄇᆞ라디 말라 믈를 일흘시 블러 우로ᄆᆞᆯ 任意로 ᄒᆞᄂᆞ다

六翮會經翦 孤飛卒未高

여슷 낫 ᄂᆞᆯ개 지치 일즉 부유믈 더내니 외로이 ᄂᆞ라 ᄆᆞᄎᆞ매 노피 몯ᄒᆞᄂᆞ다

且無鷹隼慮 留滯莫辭勞

매ᄅᆞᆯ 시름호미 업스란ᄃᆡ 머므러 이슈메 굿보ᄆᆞᆯ 마다 말라

花鴨

花鴨無泥滓 階前每緩行

ᄠᅳᆺ몰 ᄀᆡ 흐ᄅᆞ 두 ᄃᆞᆫ 뎌 업스니 階砌ㅅ 알ᄑᆡ ᄆᆡ양 每常 ᄂᆞᆯ회야 ᄃᆞᆫ니ᄂᆞ다

羽毛知獨立 黑白太分明

獨立

은言羽毛ㅣ異於衆鳥也ㅣ라。지혀獨立혼고 돌아노니 거므며 희요미 너무 分明ᄒᆞ도다

不覺群心妬休牽衆眼驚

뭀모ᄋᆞ매새오ᄂᆞᆫ 돌아다ᄅᆞᆫ ᄒᆞᄂᆞ니 뭀누늬 놀라 ᄒᆞ몰혀디 말라ㅣ

稻粱霑汝在作意莫先鳴

稻粱ᄋᆞ로 너며규미 잇ᄂᆞ니 ᄠᅳ들 니르와다 ᄂᆞ미게 몬져 우디 말라

、鷗

江浦寒鷗戲無他亦自饒

自饒ᄂᆞᆫ自得之意라。江浦애 付付늘ᄒᆞᆫ 골며기 노ᄂᆞ니 녀느 일 업시 ᄯᅩ 自饒ᄒᆞ도다

却思翻玉羽隨意點春苗

도로혀 玉ᄀᆞᆮᄒᆞᆫ 지ᄎᆞᆯ 두위티고 ᄆᆞᅀᆞ 랑ᄒᆞ고 ᄠᅳ들 조차 봆프ᄅᆞᆫ 우네버릇도

다

雪晴還須落風生一任飄風ᄂᆞ니어듭게오거든도ᄅᆞ모로 매ᄂᆞ려않고ᄇᆞᄅᆞ미나거든ᄒᆞᆫ골ᄋᆞᄃᆡᄂᆞ로몰ᄆᆞᄋᆞᆷ로ᄒᆞ놋다 幾群滄海

上清影日蕭蕭몃무리滄海우희몰고그르메나날蕭蕭ᄒᆞ거니오

獸

古詩八首 律詩七首

遣興二首

天用莫如龍有時繫扶桑하ᄂᆞᆯᄡᅳ논거ᄉᆞᆫ龍ᄀᆞᄐᆞᆫ거시업건마ᄅᆞᆫ扶桑애ᄆᆡ일저기잇ᄂᆞ니라ᄒᆞᆫ頓轡海徒湧神人身更長에ᄀᆞᆯ롤눌러ᄆᆡ야쥬매바ᄅᆞ리ᄒᆞᆫ갓봅괴엿도소니神人의몸이ᄯᅩ기니잇도다 性命

苟不存英雄徒自強苟不存은ᄂᆞ믜게자펴실시라。性命곳진실로두디몯ᄒᆞ면英雄도ᄒᆞᆫ갓스싀로세워들쎠나니라呑聲勿復道真宰意茫茫소리롤숨ᄭᅵ고다시니ᄅᆞ디말라하ᄂᆞᆳᄠᅳ디아ᄋᆞ라ᄒᆞ야모롤거시라

地用莫如馬無良復誰記ᄯᅡ햇ᄡᅳ미ᄆᆞᆯ만ᄀᆞᆫᄒᆞᆫ거시업건마ᄂᆞᆫ됴티아니ᄒᆞ면뉘記錄ᄒᆞ리오任此日千里鳴追風可君意이나래千里롤가ᄂᆞ니ᄇᆞᄅᆞᄆᆞᆯ미취ᄃᆞ라님ᄋᆡᄠᅳ데可ᄒᆞ도다君看渥洼種態與駑駘異漢元狩三年馬生渥洼水中ᄒᆞ니라。그ᄐᆡᄂᆞᆫ渥洼옛ᄆᆞ롤보

라양지鸞駘와다몯다ᄃᆞᆮ니라 不雜蹊齧間 逍遙有能事 此首ᄂᆞᆫ喩君子ᄒᆞ다 ○ ᄐᆞ며너흐ᄂᆞᆫᄉᆞ이예ᄠᅳᆺ다아니ᄒᆞ고ᄂᆞᆯ혹ᄌᆞ노ᄒᆞ야能호ᄆᆞᆯ이리잇ᄂᆞ니라

沙苑行

君不見左輔白沙如白水 繚以周墻百餘里 그듸ᄂᆞᆫ보디아니ᄒᆞᄂᆞᆫ다左輔ㅅ白沙苑ᄋᆞ로셔白水縣에니르리둘엇ᄂᆞᆫ담ᄋᆞ로百餘里ᄅᆞᆯ버므렛ᄂᆞ니라

龍媒昔是渥洼種 汗血今稱獻於此 龍媒ᄂᆞᆫ녯이渥洼앳삐니피ᄯᆞᆷ내ᄂᆞ닐예다가받ᄌᆞᆸ다ᄒᆞ야이제니ᄅᆞᄂᆞ다

苑

中騋牝三千匹豐草青青寒不死 馬ㅣ七尺曰騋ㅣ라 ○苑中엣騋牝이三千匹이로소니豆ᄒᆞᆫ食 프리퍼러ᄒᆞ야치위도주디아니ᄒᆞᄂᆞᆫ다

之豪健西域無每歲攻駒冠邊鄙 먹고豪健ᄒᆞ미西域 에도업도소니ᄒᆡ마다질드룐ᄆᆡ 야지ᄀᆞᆺ앳ᄆᆞᆯ거긔위두ᄒᆞ도다ㅣ

王有虎臣司苑門入門天廐皆雲屯 님금두겨신虎臣 이苑人門올ᄆᆞᄅᆞᆷ 아라인ᄂᆞ니門의드러보니하ᄂᆞᆳ馬 廐애다구루미屯聚ᄒᆞ얏ᄂᆞᆫᄃᆞᆺ도다

驌驦一骨獨當御春秋二時歸至尊 驌驦人ᄋᆡ氣骨 이ᄒᆞ올로님금 ᄐᆞ샤ᄆᆞᆯ當ᄒᆞ야봄과ᄀᆞ올 와두ᄢᅢ님금ᄢᅴ가ᄂᆞ다ㅣ

至尊內外馬盈億

伏櫪在坰空大存 此ᄂᆞᆫ 言內外馬ㅣ 皆不如 驌驦也ㅣ라 ○ 남ᄀᆞᆳ 안팟 귓 몺 數ㅣ 億에 ᄎᆞ건마ᄂᆞᆫ 미ᄅᆞ혀 에곰 ᄉᆞᆯ며 미해 이셔 ᄒᆞᆨ 절업시 키잇도다

逸群絶足信殊傑倜儻權奇難具論 倜儻ᄋᆞᆫ 不羈負ㅣ오 權奇ᄂᆞᆫ 善行也ㅣ라 ○ 무리 超逸ᄒᆞ야 絶等ᄒᆞᆫ 바라 젼실로 殊異ᄒᆞ며 後傑ᄒᆞ도소니 倜儻ᄒᆞ며 權奇ᄒᆞ믈 다 닐오미 어렵도다

纍纍塠阜藏奔突徃徃坡陁縱超越 塠ᄂᆞᆫ 卽 堆字ㅣ라 言苑中之陵阜高處ᄂᆞᆫ 可以藏馬之奔突이오 坡陁不平處ᄂᆞᆫ 可以縱馬之超越也ㅣ라 ○ 니엣ᄂᆞᆫ 두듥근 ᄆᆞᆯᄃᆞ로 ᄆᆞᆯ ᄀᆞᆱ고 므리므리예 두두룩ᄒᆞᆫᄃᆡ 건네 ᄠᅧ 유믈 放縱히 ᄒᆞᄂᆞ다

角壯翻同麋鹿遊浮深簸

蕩黿鼉窟 健壯호 몸ᄃᆞ토미 도로혀 사ᄅᆞ미 노ᄅᆞᆷ과 ᄀᆞᄐᆞ니 기픈 므레 벼셔 黿鼉ᄋᆡ 굼글 헤티ᄂᆞ다

泉出巨魚長比人丹砂作尾黃金鱗 므레셔 나ᄂᆞᆫ 큰 고기 기리 사ᄅᆞᆷ ᄀᆞᄐᆞ니 丹砂로 ᄭᅩ리 밍ᄀᆞᆯ오 黃金 ᄀᆞᄐᆞᆫ 비ᄂᆞᆯ로다

豈知異物同精氣雖未成龍亦有神 須溪云其浴之時예 感龍精氣ᄒᆞ야 往往애 與龍交也ㅣ라 ○다ᄅᆞᆫ 物이로ᄃᆡ 精氣ᄂᆞᆫ ᄀᆞᆮ혼 고ᄃᆞᆯ 어느 알리오 비록 龍이 ᄃᆞ외디 몯ᄒᆞ야도 ᄯᅩ 神奇호미 잇도다

瘦馬行

東郊瘦馬使我傷骨骼硉兀如堵牆 東녁 ᄆᆡ햇 여윈

ᄆᆞ리 날로 ᄒᆡ여 슬게 ᄒᆞᄂᆞ니 倗 ᄇᆞᄅᆞ도다 ᄆᆞᆷ 돌어 솜 곤도다ㅣ 絆之欲動轉

欹側此豈有意仍騰驤 ᄆᆡ엿거늘 뮈우져 ᄒᆞ다가 ᄆᆞ장 기우려 뎟ᄂᆞ니 이 엇뎨 돈고져 ᄒᆞᄂᆞᆫ ᄠᅳ디 이시리오

細看六印帶官字衆道

三軍遺路傍 여슷 고대 뎟ᄂᆞᆫ 印을 子細히 보니 官ㆆ 字ᄅᆞᆯ 帶ᄒᆞ얏ᄂᆞ니 모다

닐오ᄃᆡ 三軍이 긼ᄀᆞ 이 ᄇᆞ리다 ᄒᆞᄂᆞ다 皮乾剝落雜泥滓毛暗

蕭條連雪霜 가치 몰라 ᄠᅳᆮ드러 ᄒᆞᆯ 기 엿고 더러이 어드워 蕭條ᄒᆞ야 눈과 서

리예 니 엣도다 去歲奔波逐餘寇驊騮不慣不得將

나건ᄒᆡ 예 믌결 ᄃᆞ시 기튼 盜賊을 ᄧᅩ초지 그 驊騮馬ㅣ 닉숙다 아니ᄒᆞ야 시러곰 가져

가다몯ᄒᆞ더니라 士卒多騎內廐馬惆悵恐是病乘黃 乘黃은神馬名이라○士卒이內廐옛ᄆᆞᄅᆞᆯ해ᄐᆞ더니져ᄒᆞᆫᄃᆞᆫ이病ᄒᆞᆫ乘黃인가ᄒᆞ야ᄂᆞᆯ노라 當時歷塊誤一蹶委棄非汝能周防 그져

그ᄒᆞᆰ무적디나ᄃᆞᆫᄃᆞᆺᄒᆞ던거시외오ᄒᆞᆫ번업더디니ᄇᆞ료ᄆᆞᆯ네能히두루막디몯ᄒᆞ리라 見人慘淡若哀訴失主錯莫無晶光 사ᄅᆞᆷᄆᆞᆯ보고慘

淡히슬피하ᄂᆞᆫᄃᆞᆺᄒᆞ니님자ᄅᆞᆯ일코어그르처비치업도다 天寒遠放鴈爲伴日暮不收烏啄瘡 하ᄂᆞᆯ히치운제머리노ᄒᆞ니그려기ᄅᆞᆯ벋

ᄒᆞ얏ᄂᆞ소니나리져믈어늘거두디아니ᄒᆞ니가마괴헌ᄃᆡᄅᆞᆯ딕먹놋다 誰家且

養顧終惠更試明年春草長 뉘지븨셔任철고顧호ᄃᆞᆫ息惠를ᄆᆞᄎᆞᆷ내ᄒᆞ야오ᄂᆞᆫ힛봄프리길어든가시야ᄇᆞᆯ디니라

驄馬行

鄧公馬癖人共知初得花驄大宛種 鄧公이ᄆᆞᆯᄉᆞ랑ᄒᆞᄂᆞᆫ病을사ᄅᆞᆷ미다아ᄂᆞ니처어ᄆᆡ花驄을어드니大宛앳비로다

夙昔傳聞思一見牽來左右神皆竦 녜傳聞ᄒᆞ고ᄒᆞᆫ번보고져ᄉᆞ랑ᄒᆞ다니오ᄂᆞᆯ잇거오니左右에사ᄅᆞᆷ미精神을다竦動ᄒᆞᄂᆞ다

雄姿逸態何崷崒顧影驕嘶自矜寵 崷崒은高皃ㅣ라○雄壯ᄒᆞᆫ양ᄌᆞ와俊逸ᄒᆞᆫ양

ᄌᆞ왜 ᄌᆞ모 노ᄑᆞ니 그르메로 도라 보고 隅目
驕慢히 우러 졔 榮寵ᄒᆞᆫ ᄆᆞᆯ 矜誇ᄒᆞᄂᆞ다
青熒夾鏡懸 肉騣碨礧連錢動 肉騣은 肉이 突起ᄒᆞ야 碨礧然也ㅣ라 連錢은 馬毛文ㅣ如錢形而連也ㅣ라 ○모난 누니 빗나 거우루를 ᄢᅵ ᄃᆞ랏ᄂᆞᆫ ᄃᆞᆺᄒᆞ고 肉騣ㅣ 머흘오 니은 도니 뮈옛도다
朝來少試華軒下 未覺千金滿高價 아ᄎᆞᄆᆡ 빗난 軒檻 아래다가 저기 보니 千金ㅣ 노ᄑᆞᆫ 비ᄃᆡ ᄀᆞ독호ᄆᆞᆯ 아디 몯ᄒᆞ리로다
赤汗微生白雪毛 銀鞍却覆香羅帕 블근 汗미 힌 눈 ᄀᆞᆮᄒᆞᆫ 터리예 져기 나ᄂᆞ니 銀기르마애 도로 香羅로 ᄆᆡᆼᄀᆞ론 帕ᄅᆞᆯ 두펫도다
卿家舊物公能取 天廐真龍此其

亞 甫ㅣ自註太常梁卿의勅賜馬ㅣ어늘李鄧公愛而有之ᄒᆞ니라○公卿의지븻物을그듸能히아ᅀᆞ오니하ᄂᆞᆳ馬廐앳眞實ㅅ龍ㅣ오이ᄂᆞᆫ그버그니로다 畫洗須

騰驤 涇渭深 夕趨可刷幽并夜 나지싯ᄀᆞ므란모로매涇水渭水ㅅ기픈ᄃᆡ돌여가고나조ᄒᆡ돌여幽州幷州ㅅ바ᄆᆡ셔可히빗기리로다 吾聞

良驥老始成 此馬數年人更驚 나ᄂᆞᆫ드로니됴ᄒᆞᆫ驥馬ᄂᆞᆫ거아비르서이나니이ᄆᆞ리두어ᄒᆡ면사ᄅᆞ미다시놀라리로다 豈有四蹄

疾於鳥 不與八駿俱先鳴 엇뎨네바리새라와ᄀᆞᆯ오미ᄃᆞ실ᄊᆡ라니리오八駿으로다뭇ᄒᆞ야ᄒᆞᆫᄢᅴ가다아니ᄒᆞ고몬져울리로다 時俗造次

那得致雲霧晦冥方降精 月精이降而生馬ᄒᆞᄂᆞ니라時俗은아니한ᄉᆞ이예엇뎨시러곰닐위리오雲霧ㅣ어듭거든뵈야ᄒᆞ로精氣ᄂᆞ리ᄂᆞ니라

近聞下詔喧都邑肯使麒麟地上行 近聞애들도니詔書ㅣᄂᆞ려都邑에셔수ᅀᅳᄂᆞ니엇뎨麒麟ᄋᆞ로ᄒᆡ여地上애셔ᄃᆞᆮ니게ᄒᆞ리오

高都護驄馬行

安西都護胡青驄聲價欻然來向東 言驄馬ㅣ本出於西ᄒᆞ야東來長安也ㅣ라○安西都護의뎌프른驄馬ㅣ소리와빗괘믈드시오ᄆᆞᆯ東ᄋᆞ로向ᄒᆞ도다

此馬臨陣久無敵與人一心成大功

이ᄆᆞ리戰陣을臨ᄒᆞ야오래골오리엽스니사ᄅᆞᆷ과다ᄆᆞᆺᄒᆞᆫᄆᆞᄋᆞ미ᄃᆞ외야큰功을일우도다

功成惠養隨所致飄飄遠自流沙至

功을일우고恩惠로이바다제오ᄂᆞᆫᄃᆡ조쳐오니飄飄히머리流沙로브터오도다

雄姿未受伏櫪恩猛氣猶思戰場利

雄壯ᄒᆞᆫ양ᄌᆞᄂᆞᆫ멀험메굽스러셔恩惠ᄅᆞᆯ트디아니ᄒᆞ리로소니미온氣運은오히려戰場애ᄂᆞᆯ카이ᄃᆞ토ᄆᆞᆯᄉᆞ랑ᄒᆞ놋다

腕促蹄高如踣鐵交河幾蹴層氷裂

ᄇᆞᆯ모기뎌ᄅᆞ고구비노파쇠ᄅᆞᆯᄇᆞᆲᄂᆞᆫᄃᆞᆺᄒᆞ니交河애몃버늘層層인어르믈ᄇᆞᆯ와ᄣᅢ혀ᄇᆞ리니오

五色散作雲滿身萬里方看汗流血

다ᄉᆞᆺ가짓비치

ᄒᆞ리 구루믈 지어 모매 ᄀᆞ독ᄒᆞ니 萬里가 長

매 뵈야ᄒᆞ로 代몰 피 흘류믈 보리로다

安壯兒不敢騎走過掣電傾城知 長安ㅅ 健壯ᄒᆞᆫ 아ᄒᆡ

도 구틔여 ᄐᆞ디 몯ᄒᆞᄂᆞ니 ᄆᆞᆯ리 ᄐᆞ니 번개를

ᄠᅥ나 ᄃᆞ로ᄆᆞᆯ 城中이 ᄀᆞ올에 모다 아ᄂᆞ다

青絲絡頭為君老何由却出橫門道 橫音은 光이니

橫門은 長安城北門이라 言馬才ᄂᆞᆫ 在於戰

陣ᄒᆞ니 不着出橫門ᄒᆞ야 以致功也ㅣ라

프른 실로 머리를 ᄆᆡ야 그ᄃᆡ를 為ᄒᆞ야 셔 늘글

ᄂᆞ니 어느 말미로 도로 橫門ㅅ 길흐로 나가

오리오

李鄠縣丈人胡馬行

丈人駿馬名胡騮前年避胡過金牛迴鞭却

走見天子朝飮漢水暮靈州 金牛ᄂᆞᆫ 蜀地名이라 ○丈人의

駿馬ᄂᆞᆫ 일후미 되 騮馬ㅣ니 前年에 되ᄅᆞᆯ 避

ᄒᆞ야 金牛ᄅᆞᆯ 디나가 채ᄅᆞᆯ 돌아도로 도ᄅᆞ혀 天

子ᄅᆞᆯ 와 보ᅀᆞ오니 아ᄎᆞ미 漢水 自矜胡騮奇

ᄅᆞᆯ 머기고 나조ᄒᆡ 靈州오니라

絶代乘出千人萬人愛 되騮馬의 奇異호미

一代예 그츤고 돌ᄋᆡ제

矜誇ᄒᆞ더다 나거든 千人萬

人이 ᄉᆞ랑ᄒᆞᄂᆞ니라 ᄒᆞᄂᆞ다 一聞說盡急難

材轉益愁向駑駘輩 急難材ᄂᆞᆫ 如劉備의 的

盧ㅣ 躍過檀溪ᄒᆞ야 免

劉表之追之類ㅣ라 言聞胡騮之村ᄒᆞ고 自

傷所乘이 皆駑駘也ㅣ라 ○ 어려운 ᄃᆡ 救ᄒᆞ

ᄂᆞᆫ村貧ᄋᆞᆯ다니르거늘ᄒᆞᆫ번듣고더우駑駘ᄆᆞ를向ᄒᆞ야시름ᄒᆞ노라頭上銳

耳批秋竹脚下高蹄削寒玉머리우흿ᄂᆞᆯ카온귀ᄂᆞᆫᄀᆞ올대

ᄅᆞᆯ버힌돗고허튓아랫노ᄑᆞᆫ바ᄅᆞᆫᄎᆞᆫ玉ᄋᆞᆯ갓곤돗도다始知神龍別有

種不比俗馬空多肉神龍ᄋᆞᆫ別히베이쇼ᄆᆞᆯ비ᄂᆞ서아ᄃᆞ니샹ᄆᆞ

ᄅᆡᄒᆞᆫ갓고기함ᄋᆞᆫ다아니ᄒᆞ니라洛陽大道時再清累日喜

得俱東行。時再清ᄋᆞᆫ謂己收復東京也ㅣ라洛陽人큰길헤時節이다시ᄆᆞᆰ

개늘여러나ᄅᆞᆯ시러곰ᄒᆞᆫᄢᅴ東ᄋᆞ로녀가ᄆᆞᆯ깃노라鳳臆龍鬐未易識

側身注目長風生鳳의가ᄉᆞᆷᄀᆞᄐᆞ며龍의갈기ᄅᆞᆫᄒᆞᆫ닐수이아라보디

몯ᄒᆞ리로소니 모ᄆᆞᆯ 기우려 누
늘 ᄲᅥᆯ아 보니 긴 ᄇᆞᄅᆞ미 나ᄂᆞ다

惜別行送劉僕射判官

聞道南行市駿馬不限疋數軍中須 南녀그로 가 駿
馬ᄅᆞᆯ 사ᄂᆞ다 니ᄅᆞ거늘 드로니 疋數ᄅᆞᆯ 그
지 아니ᄒᆞ야 軍中에 ᄡᅳ리라 須求ᄒᆞᄂᆞ다 襄
陽幕府天下異主將儉省憂艱虞 主將ᄋᆞᆫ 郎 梁公이라
○襄陽ㅅ幕府ㅣ 天下애 다ᄅᆞ니 읏듬 將帥
ㅣ 儉省ᄒᆞ야 나랏 어려운 이ᄅᆞᆯ 시름ᄒᆞᄂᆞ다
祇收壯健勝鐵甲豈因格鬪求龍駒 오직 壯健ᄒᆞ야
셕甲이 이긔리ᄅᆞᆯ 얻디웨엿뎌 사호ᄆᆞᆯ
因ᄒᆞ야 뎌 龍의 삿기ᄅᆞᆯ 求ᄒᆞ리오 而今西

北自反胡騏驎蕩盡一疋無 이제西北에되反ᄒᆞ모로브터騏驎이다업서一疋도업스니라

龍媒眞種在帝都子孫未落西南隅 龍媒ᄂᆞᆫ良馬ㅣ라○龍媒의眞實ㅅᄡᅵᄂᆞᆫ帝都애잇ᄂᆞ니子孫이西南ㅅ모해ᄂᆞ롓디아니ᄒᆞ니라

向非戎事備征伐君肯辛苦越江湖 萬一兵戎ㅅ이레사호매備用아니면그듸ᄂᆞᆫ엇뎨辛苦로이江湖ᄅᆞᆯ건나가리오

江湖凡馬多顦顇衣冠往往乘蹇驢 江湖애샹ᄆᆞ리해顦顇ᄒᆞ니衣冠ᄒᆞᆫ사ᄅᆞ미ᄆᆞ리ᄆᆞ리예젼나귀ᄅᆞᆯᄐᆞᄂᆞ니라

梁公富貴於身疎號令明白人安居 梁公ᄋᆞᆫ富貴ᄅᆞᆯ모매疎遠히ᄒᆞ

ᄂᆞ니號令을보기ᄒᆞᆯ시사ᄅᆞ미便安히사ᄂᆞ니라 俸錢時散士子盡

府庫不爲驕豪虛 俸祿앳도ᄂᆞ란時로士子ᄋᆡ게ᄒᆞ려주어몯ᄒᆞ고府庫

ᄂᆞᆫ驕慢ᄒᆞ며豪奢호ᄆᆞᆯ爲ᄒᆞ야뷔우돌아니ᄒᆞᄂᆞ니라 以玆報主寸心

赤氣却西戎迴北狄 일로베님그믈갑ᄉᆞᆸᄂᆞᆫ寸心ㅣ블그니氣運ㅣ

西戎을믈리조ᄎᆞ며北狄을횟도라가게ᄒᆞᄂᆞ다 羅網群馬籍馬多

氣在驅除出金帛 籍ᄆᆞ롤그믈로ᄡᅳ려잡ᄃᆞᆺᄒᆞ야글워레브듬ᄆᆞ리하

니意氣盜賊을모라더러ᄇᆞ료매이실시金帛ᄋᆞᆯ내야사ᄂᆞ다 劉侯奉使光

推擇滔滔才略滄溟窄 劉侯이브리여가매골히요매빗나니큰저

조와謀略요바ᄅᆞ리아조ᄇᆡ리로다杜陵老翁秋繫船扶病相
識長沙驛杜陵엣늘근한아비ᄀᆞ올히ᄇᆡ롤ᄆᆡ오病ᄒᆞ야브티들여셔長沙ㅅ
驛에와셔르아노라強梳白髮提胡盧手兼菊花路傍
摘胡盧ᄂᆞᆫ酒器라。고ᄃᆞᆯ파힌머리롤빗ㅅ고胡盧롤잡고소ᄂᆞ로菊花롤길ᄀᆞ애ᄠᅡ몰
兼ᄒᆞ놋다九州兵革浩茫茫三歎聚散臨重陽아홉
ᄀᆞ올히兵革이해아ᄋᆞ라ᄒᆞ니모다이시며흐러가몰세번嗟歎ᄒᆞ고重陽올臨ᄒᆞ야슈
라當杯對客忍涕淚不覺老夫神內傷老夫ᄂᆞᆫ甫
ㅣ라。酒杯롤當ᄒᆞ고소ᄂᆞᆯ對ᄒᆞ야셔눉므ᄅᆞᆯᄎᆞ모니늘근노ᄆᆡᄆᆞᄋᆞ미안ᄒᆞ로ᄉᆞᆯ호몰

누미、아디
몬ᄒᆞ、ᄂᆞ다

、秦州雜詩一首

南使宜天馬由來萬匹強 南使ᄂᆞᆫ地名이니 唐이置牧馬監ᄒᆞ、니 此篇은專賦天馬ᄒᆞ니라○南使애 天馬ㅣ 됴ᄒᆞ니 由來로 萬匹이 넘도다

浮雲連陣沒秋草徧山長 ᄠᅳᆫ 구루미 陣에 니ᅀᅥ ᄢᅦ 됫고 ᄀᆞᅀᆞᆳ 프른 되해 펴 뎌기 깃 도다

聞說真龍種仍殘老驌驦 真實ㅅ龍 의 삐라 니ᄅᆞ、거늘 드로니 지즈로 늘 근 驌驦이 衰殘ᄒᆞ얏도다

哀鳴思戰鬪迥立向蒼蒼 슬피 우러셔 사호ᄆᆞᆯ ᄉᆞ랑ᄒᆞ、야 아ᄋᆞ、라히 셔셔 하ᄂᆞᆯ홀 向ᄒᆞ얏도다

玉腕騮 江陵節度使衛公馬ㅣ라

聞說荊南馬尙書玉腕騮 니르거늘드로니荊南ㅅ모ᄅᆞᆫ尙書의玉腕騮ㅣ라ᄒᆞᄂᆞ다

頓驂飄赤汗 跼蹐顧長楸 驂馬매늘러이니블근ᄯᆞ미브리ᄂᆞ니모몰구펴볼와쉬ᄀᆞ래나모서리예셔도라보ᄂᆞ다

胡虜三年入 乾坤一戰收 되세ᄒᆡ롤ᄃᆞ려골외더니하ᄂᆞᆯ콰ᄯᆞ콰ᄅᆞᆯᄒᆞᆫ번사화앗도다

擧鞭如有問 欲伴習池遊 習池ᄂᆞᆫ見前註ᄒᆞᄂᆞ니言衛公이乘此馬ᄒᆞ야必來遊甫家ㅣ니라○채ᄅᆞᆯ드러萬一무ᄅᆞ미이시면習池에노로ᄆᆞᆯ벋고져ᄒᆞ리로다

房兵曹胡馬

胡馬大宛名 鋒稜瘦骨成 되ᄆᆞᄅᆞᆫ 大宛 나랏 일훔난 거시니 갈 ᄂᆞᆯ모ᄀᆞᄐᆞᆫ 이 원ᄲᅦ 이럿도다 竹批雙耳峻 風入四蹄輕 대 버힌ᄃᆞᆺᄒᆞᆫ 두 귀 놉고 ᄇᆞᄅᆞ미 드렛ᄂᆞᆫᄃᆞᆺᄒᆞᆫ 네 바리 가ᄇᆡ얍도다 所向無空闊 真堪託死生 이 ᄂᆞᆫ 가ᄂᆞᆫ ᄃᆡ 믄득 다ᄃᆞ라 갈ᄉᆡ 알피 뷔엿ᄂᆞᆫ ᄃᆡ 업슬시니 이런 ᄃᆞᆫ ᄆᆞᄅᆞᆯ ᄐᆞ면 死生ᄋᆞᆯ 免ᄒᆞ리라 ᄒᆞ논 마리라 ○ 向ᄒᆞ야 가논 바ᄆᆡ 뷔여 어원 ᄃᆡ 업스니 真實로 자ᄅᆞ미 死生 몸 브텀직ᄒᆞ도다 驍騰有如此 萬里可橫行 ᄂᆞ소소미 이ᄀᆞ토미 잇ᄂᆞ니 萬里예 어로 빗기 ᄃᆡ리로다

、病馬

乘爾亦已久天寒關塞深 在秦州作이라○너를ᄐᆞ미ᄯᅩᄒᆞ야오라니하ᄂᆞᆯ히칩고關塞기곤ᄯᅡᆨ히로다 塵中老盡力歲晚病傷心 ᄃᆞ틀소배늙도록히믈다ᄋᆞ게투니歲晚애病ᄒᆞᆫ서ᄆᆞᄋᆞ몰슬노라 毛骨豈殊衆馴良猶至今 터리와ᄲᅧ아엇뎨모ᄃᆞᆫ게다ᄅᆞ리오질드려됴호ᄆᆞᆯ오히려이제니르도다 物微意不淺感動一沉吟 物이아죠고맛거시나ᄠᅳ디기플ᄉᆡ感傷ᄒᆞ야ᄒᆞᆫ번기픠이푸믈뮈오노라

、麂 麂音几니大麋也ㅣ라

永與清溪別蒙將玉饌俱 기라몰곤시내와 다몯여희니가져 다가玉곤ᄒᆞᆫ차반에 ᄒᆞᆫ디ᄲᅮᆫ몰니빗도다 無才逐仙隱不敢恨庖廚 九華隱翁이與白鹿로同隱ᄒᆞ니라○仙 人을조차隱居홀지죄업스니누틔여브 어베드도몰뉘읏 디마롤디니라

亂世輕全物微聲及禍樞 言聞鳴聲而獵取也ㅣ라○어즈러운世예 物으올와두몰가비야이너기ᄂᆞ니져고맛 소리禍樞 에밋도다

衣冠兼盜賊饕餮用斯須 饕ᄂᆞᆫ 貪財 오餮은貪食ㅣ라○衣冠ᄒᆞ고盜賊을兼ᄒᆞ 야ᄒᆞᄂᆞ니饕餮호몰져근디데ᄡᅥᄒᆞ놋다

丶猿

裊裊啼虛壁 蕭蕭掛冷枝 裊裊ᄂᆞᆫ 與嫋嫋로 同ᄒᆞ니 聲長之皃ㅣ라 ○裊裊히 뷘 石壁에셔 울오 蕭蕭히 서늘ᄒᆞᆫ 나못 가지예 거렛도다

艱難人不免 隱見爾如知 言猿之隱 茂林이 如知隱現之機也ㅣ라 ○어려우믄 사ᄅᆞ믄 免티 몯ᄒᆞ거늘 수무며 나며 호ᄆᆞᆯ 너ᄂᆞᆫ 아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慣習元從衆 全生或用奇 닉수거 본ᄃᆡ록 무를 좃고 목숨 오올오ᄆᆞ란 시혹 奇異호ᄆᆞᆯ ᄡᅳᄂᆞ다

前林騰每及 父子莫相離 앏 수프레 ᄃᆞ라 每常 미처 아비와 아ᄃᆞᆯ왜 서르 여희디 아니ᄒᆞᄂᆞ다

、從人覓小胡孫許寄

人說南州路山猿樹樹懸사ᄅᆞ미닐오ᄃᆡ南州ㅅ길헤뫼햇나비나모마다ᄃᆞᆯ엿다ᄒᆞᄂᆞ다舉家聞若駭為寄小如拳胡孫ᄋᆞᆫ猿類ㅣ니小者為貴ᄒᆞ니라○지비다듣고놀라ᄂᆞᆫᄃᆞᆺᄒᆞᄂᆞ니져고미주먹ᄀᆞᄐᆞ니ᄀᆞᆯ為ᄒᆞ야브터보내라額晒愁胡面初調見馬鞭시름ᄒᆞᄂᆞᆫ되ᄂᆞᆺᄀᆞ토몰미리웃노니쥐엄질ᄃᆞ류던몰체로뵈욜디니라許求聰慧者ᄒᆞᆯ稚捧應顛ᄉᆞᆯ가오닐求호몰許ᄒᆞᄂᆞ니아히돌히바ᄃᆞ면당당이업드리리로다

蟲律詩三首

促織

促織甚微細哀音何動人 뵈빵이甚히죠고마ᄒᆞᆫ거시로ᄃᆡ ᄉᆞᆯ픈소리ᄂᆞᆫ ᄌᆞ모 사ᄅᆞ몰 感動ᄒᆞᄂᆞ다

草根吟不穩牀下夜相親 픐불휘예셔 이푸니 편티 아니ᄒᆞᆯ시 平牀 아래 바미 서르 親近히 오ᄂᆞ다

久客得無淚故妻難及晨 오란 나그내 시러곰 눈므리 입스리아 녯 겨지븐 새배ᄅᆞᆯ 미처 사라슈미 어렵도다

悲絲與急管感激異天眞 絲管 이 與促織의 感人ᄋᆞ로 不同也ㅣ라 ○ 슬픈 거믄고와 다ᄆᆞᆺ ᄲᆞᄅᆞᆫ 뎌히 사ᄅᆞ몰 感激게ᄒᆞ미 하ᄂᆞᆳ 真性엣 것과 다ᄅᆞ도다

螢火

幸因腐草出 敢近太陽飛 幸히 서근 프를 因ᄒᆞ야 나니 구틔여 ᄒᆡᆺ비체 갓가이 ᄂᆞᆯ리아

未足臨書卷 時能點客衣 臨書卷은 用車胤의 囊螢照書事ᄒᆞ니라 ○是ᄒᆡ 書卷긘 臨ᄒᆞᆫ디 몯ᄒᆞ리오 時로 能히 나그내 오세 비라 약ᄂᆞᆺ다

隨風隔幔小 帶雨傍林微 ᄇᆞᄅᆞᄆᆞᆯ 조차 帳애 즈음쳐 젹고 비ᄅᆞᆯ 띄차 수프를 바라 微微ᄒᆞ도다

十月清霜重 飄零何處歸 十月에 ᄆᆞᆯᄀᆞᆫ 서리 하거든 블며 ᄂᆞ 뜨리로 길고

見螢火

巫山秋夜螢火飛簾疎巧入坐人衣 巫山ㅅ ᄀᆞ올바ᄆᆡ 반ᄃᆡ ᄂᆞᄂᆞ니 바리 드믄 ᄃᆡ로 工巧히 드러 사ᄅᆞ믜 오새 안ᄂᆞ다

忽驚屋裏琴書冷復亂簷前星宿稀 집 안햇 거믄고와 書冊의 서늘호ᄆᆞᆯ 믄득 놀라고 ᄯᅩ 집기슭 알ᄑᆡ 별이 조리우니 버리 드믄ᄃᆞᆺ ᄒᆞ도다

却繞井欄添箇箇偶經花藥弄輝輝 도로혀 우믌 欄干애 비므더 낫나치 더으고 偶然히 고ᄌᆞᆯ 디나가 빗나ᄆᆞᆯ ᄒᆞ 놀이 놋다

滄江白髮愁看汝來歲如今歸未歸 滄江애와 셴 머리예 시름ᄒᆞ야 너를 보노니 오ᄂᆞᆯ ᄒᆡ예 ᄢᅵ 도라 갈가 몯 도라 갈가

魚 律詩二首

、黃魚

日見巴東峽黃魚出浪新 날마다巴東ㅅ峽을보니黃魚ㅣ믌겨레나새롭도다

脂膏兼飼犬長大不容身 兼飼犬은言其多也ㅣ라長大ᄂᆞᆫ大者ㅣ數百斤이라○기르믈가히ᄅᆞᆯ머교ᄆᆞᆯ兼ᄒᆞᄂᆞ니길오커모ᄆᆞᆯ容納ᄒᆞ디몯ᄒᆞ놋다

筒筩相沿久風雷肯爲神 筒筩은捕魚器也ㅣ라○筒筩ᄋᆞ로자보ᄆᆞᆯ서르沿襲호미오라니ᄇᆞᄅᆞᆷ과우레예神奇ᄅᆞ외요ᄆᆞᆯᄒᆞ리마

泥沙卷涎沫回首怪龍鱗 ᄒᆞᆰ과몰앳서리예추미거

구밀엣ᄂᆞ니미리믈도라셔龍의이르ᄂᆞᆫ怪異히너기노라

白小

白小群分命天然二寸魚 白小ㅣ무리목수믈ᄂᆞᆫ호아잇ᄂᆞ니天然ᄒᆞᆫ두寸만ᄒᆞᆫ고기로다 細微霑水族風俗當園蔬 當ᄋᆞᆫ去聲이라○細微ᄒᆞᆫ거시水族ᄋᆞᆯ니벳도소니風俗ᄋᆞ로園中엣菜蔬와마초ᄂᆞ니라 入肆銀花亂傾箱雪片虛 市肆애드리니銀ㅅ고지어즈러운ᄃᆞᆺ고箱子ᄅᆞᆯ기우리니눈ㅅ片이뷘ᄃᆞᆺᄒᆞ도다 生成猶拾卵盡取義何如 나셔이ᄂᆞᆫ거슨오히려알ᄒᆞᆯ줏ᄂᆞ니다지보ᄆᆞᆫ義에엇더ᄒᆞ리오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七

分類杜工部詩卷之十八

花古詩三首 律詩十三首

歎庭前甘菊花

庭前甘菊移時晩青蘂重陽不堪摘 言菊이移種이旣晩故로開花이遲ᄒᆞ야不可采摘也ㅣ라 ○ᄠᅳᆯ알ᄑᆡ甘菊이옮겨심군배느즐ᄉᆡ프른곳부리라重陽애ᄣᅡ직디아니ᄒᆞ도다

明日蕭條盡醉醒殘花爛熳開何益 言重陽之後에雖爛熳開花ㅣ라도無所益也ㅣ라 ○니일蕭條히다醉ᄒᆞ얫다가ᄭᆡᆫ衰殘ᄒᆞᆫ고지爛熳히픈돌므스기有益ᄒᆞ리오

籬邊

野外多衆芳采擷細瑣升中堂 細瑣ᄂᆞᆫ 指野外衆芳ᄒᆞ다

ᄆᆞ옰 곳과 ᄆᆡ 밧긔 여러 곳다온 거시 서흑티 근 거슬 ᄏᆡ야 中堂애 올오각ᄒᆞᆯ 念玆

空長大枝葉結根失所纏風霜 이 거식ᄒᆞᆫ 갓가지와 닙괘

길오 크몸 ᄉᆞ랑ᄒᆞᄂᆞ니 불휘 미조미 處所ᄅᆞᆯ 일ᄂᆞ니 ᄇᆞᄅᆞᆷ과 서리왜 얼겟도다

江頭五詠 二首見鳥門ᄒᆞ다

丁香

丁香體柔弱亂結枝猶墊 墊은 都念反ᄒᆞ니 下也ㅣ라 ○丁香

이 읏드미 보ᄃᆞ라오니 어즈러이 여르미 뭐자 가지 오히려 ᄲᅢ텻도다 細葉帶

浮毛踈花披素艶ᄀᆞᄂᆞᆫ니 픈 븐더리 굴ᄯᅴ 찻
고 ᄉᆡᆺ권고 ᄌᆞᆫ흰 고온 ᄇᆡ시
펫도 深栽小齋後庶近幽人占 ᄌᆡ고 맛집뒤
다 헤기 피시므
니 幽隱ᄒᆞᆫ 사ᄅᆞ미 占 得
호매 거의 갓갑도다 晩墮蘭麝中休懷粉
身念 言丁香이 結實ᄒᆞ거든 ᄇᆞ아 蘭草麝香
과 ᄒᆞᆺ거ᄯᅳ ᄂᆞ니라 ○ 늘거가 蘭麝ㅅ가
온뒤 ᄃᆡ리니 모미 ᄇᆞ아
둘헤 아ᄅᆞ모 먹기 말라

麗春

百草競春華麗春應最勝 麗春은 花名이라 ○ 온가짓 ᄑᆞ리 봆
비ᄎᆞᆯ ᄃᆞ토ᄂᆞ니 麗春이 당 少須好顔色多漫
당이 만직 더으리로다

枝條剩 剩은有餘也ㅣ라○져거아모로매 ᄂᆞᆺ비지됴ᄒᆞ니하면쇽졀업시가지

ᄃᆞᆯ히하거 ᄂᆞᆯ作ᄒᆡ비 紛紛桃李枝處處總能移如何貴

此重却怕有人知 如隱逸者ㅣ人雖不知나 亦畏人之知也ㅣ니라○

이즈러운桃李人가지로곤마다다能히옮 겨시므ᄂᆞ니엇데이거싀重호ᄆᆞᆯ貴히너기

리오져도도ᄅᆞ혀사ᄅᆞᆷ 알리이실가젓ᄂᆞ다

、梔子

梔子比衆木人間誠未多 梔子ㅣ믈읫남ᄀᆡ가 졷비면人間애眞

實로하디아 니ᄒᆞ도다 於身色有用與道氣傷和 梔子 ᄂᆞᆫ染

帛ᄒᆞᄂᆞ니 其性은 冷ᄒᆞ니라 ○사ᄅᆞ미 모면 비치 블뒤잇고 道와 다ᄉᆞᆺ ᄒᆞᆫ 안 氣運이 溫和ᄒᆞ믈 傷害ᄒᆞᄂᆞ니라

紅取風霜實 靑看雨露柯 블그니란 ᄇᆞᄅᆞᆷ과 서리예 여르믈 ᄠᆞ고 프르니란 비와 이스렛 가지ᄅᆞᆯ 보노라

無情移得汝 貴在映江波 너ᄅᆞᆯ 옮겨 올ᄆᆞ디 업수믄 ᄀᆞᄅᆞᇝ 믌겨ᄅᆞᆯ 비취여 이슈미 貴ᄒᆞᆯ시라니라

風雨看舟前落花戲爲新句

江上人家桃樹枝 春寒細雨出疎籬 ᄀᆞᄅᆞᇝ 우희 사ᄅᆞ미 짒 桃樹ㅅ 가지 보미 서늘커늘 ᄀᆞᄂᆞᆫ 비예 ᄒᆡᆺ귄 울헤 내와댓도다

影遭碧水

潛句引風妬紅花却倒吹 그르메ᄂᆞᆫ 프른 므리 ᄀᆞ마니 길위혀 몯 맛낫ᄂᆞ니 ᄇᆞᄅᆞ미 블근 고ᄌᆞᆯ 새와ᄃᆞ로 갓ᄀᆞ로 부놋다

吹花困懶旁舟楫水先風力俱怯 怯은 懼也ㅣ라 ○ 블민 고지 이ᄎᆞ어 게을어 비믈 바ᄂᆞ니 ᄆᆞᆺ빗파 ᄇᆞᄅᆞᆷ ᄒᆡ메 다 쉬르지ᄒᆡ ᄒᆞ놋다

赤憎輕薄遮人懷珍重分明不來折 赤憎은 猶生憎이니 方言也ㅣ라 ○ 하비야와 사ᄅᆞᄆᆡ 프메 ᄀᆞ리오몰 ᄀᆞ장 의노니 번ᄃᆞ기 와 것디 아니ᄒᆞ요몰 珍重히 너기노라

濕久飛遲半欲高縈沙惹草細於毛 저주미 오라고 ᄂᆞ로ᄆᆡ 더듸오 半만 노피 오ᄅᆞ고져 ᄒᆞᄂᆞ니 몰애예 비믈어 프래 브터 이니 터리라와 ᄀᆞᄂᆞ도다

蜜蜂胡蝶生情性偷眼蜻蜓避伯勞 伯勞ᄂᆞᆫ 鶪이니 惡鳥故로 蜻蜓이 避其害也ㅣ라 ○ 벌와 胡蝶은 즐기ᄂᆞᆫ ᄠᅳ들 내어 놀일 비어 보ᄂᆞᆫ 존자리ᄂᆞᆫ 伯勞를 避ᄒᆞᄂᆞ다

和裴迪이 登蜀州東亭ᄒᆞ야 送客ᄒᆞ다가 逢早梅ᄒᆞ야 相憶見寄ᄒᆞ노라

東閣官梅動詩興ᄒᆞ니 還如何遜在揚州 何遜이 有揚州ㅣ 早梅詩ᄒᆞ니라 ○ 東녁 樓閣앳 구읫 梅花ㅣ 글지ᅀᅳᆯ 興을 뮈우니 도로혀 何遜이 揚州 잇ᄂᆞᆫ ᄃᆞᆺᄒᆞ도다

此時對雪遙相憶送客逢春可自由

自由ᄂᆞᆫ猶會得也ㅣ라○이ᄢᅵ나ᄂᆞᆯ對ᄒᆞ야
쉬아、다히쉬르ᄉᆞ랑ᄒᆞ니손ᄂᆞᆫ내요매보

몯맛나거니可
ᄒᆡ自ᄒᆞᆯᄒᆞ리아

幸不折來傷歲暮若爲看去

亂鄕愁

言不折梅而寄來ᄒᆞ니何必徃看之
리오○幸히것기와歲暮애슬케티

아니ᄒᆞ니엿뎨보아가本鄕ᄉᆞ리
ᄒᆞ논시르믈어즈럽게ᄒᆞ리오

江邊一樹

垂垂發朝夕催人自白頭

ᄀᆞᄅᆞᆷᄀᆞᆺᄒᆞᆫ남기
드리념혯ᄂᆞ니아

ᄎᆞᆷ나조히시ᄅᆞ믈뵈이
절로머리셰에ᄒᆞᄂᆞ다

、江梅

在江邊曰江梅오在野曰野梅오
在嶺曰嶺梅오在官中曰官梅라

梅蘂臘前破梅花年後多

梅花入부리실아
래뼈니나梅花ㅣ

희後에 하도다 絶知春意早最奈客愁何 ᄀᆞ장 봆ᄠ디 일우믈 아노니 안직 나그내 시ᄅᆞᆷ멘 엇뎨ᄒᆞ니오

雪樹元同色江風亦自波 눈 왯ᄂᆞᆫ 나모와 본ᄃᆡ ᄒᆞᆫ 비치로소니 ᄀᆞᄅᆞᄆᆡ ᄇᆞᄅᆞ매 ᄯᅩ 절로 믌결 닌ᄃᆞᆺᄒᆞ도다

故園不可見巫峀鬱嵯峨 故園은 指長安杜陵ᄒᆞ다 ○故園을 可히 보디 몯ᄒᆞ리소니 巫山ㅅ 묏부리 鬱然히 놉도다

、早花

西京安穩未不見一人來 廣德三年에 吐蕃이 陷京이어늘 代宗이 幸陝ᄒᆞ시니라 ○西京은 편안ᄒᆞᆫ가 臘은ᄒᆞᆫ가 ᄒᆞᆫ 사ᄅᆞ미 옴도 보디 몯ᄒᆞ리로다 月

月已江曲山花已自開 엿ᄃᆞᆳ 已 江ㅅ 구븨예 뫼고지 ᄒᆞ마 절로 픳드다

盈盈當雪杏 豔豔待春梅 盈盈은 美女의 端麗皃ㅣ라 ○

盈盈ᄒᆞᆫ 누늘 當ᄒᆞ얏ᄂᆞᆫ ᄉᆞᆯ곳고지오

고오니ᄂᆞᆫ 보ᄆᆞᆯ 기들우ᄂᆞᆫ 梅花ㅣ로다 直苦

風塵暗 誰憂客鬢催 風塵은 指兵亂ㅣ라 ○ 곧 風塵의 어드우믈

苦로이 너기고 나그내 구믿

셰욤 뵈아ᄆᆞᆯ 뉘 시름ᄒᆞ리오

、花底

紫蕚扶千蘂 黃鬚照萬花 블근 고ᄌᆞᆫ 즈은 蘂ᄅᆞᆯ 扶持ᄒᆞ얏고 누ᄅᆞᆫ 입ㅣ우즌 萬花ᄅᆞᆯ 비취엿도다 忽疑行暮雨 何事入朝霞

此ᄂᆞᆫ 言如神女ㅣ 行雨於暮而又入朝霞之中이니 皆美花色之艶也ㅣ라 ○ 나죄 비를 디ᄂᆞᆫ가 ᄆᆞᆫ득 疑心ᄒᆞ다니 ᄆᆞᄎᆞ 일로다 ᄎᆞᆷ 雲霞애 드럿ᄂᆞ니오

恐是潘安縣

堪留衛玠車 潘安仁ㅣ 爲河陽縣令ᄒᆞ야 植桃李花ᄒᆞ니 衛玠ㅣ 乘羊車入市어ᄂᆞᆯ 見者ㅣ 以爲玉人ᄒᆞ니라 ○ 이 潘安의 고올힌가 저ᄒᆞ노니 衛玠 ᄐᆞᆫ 술위를 머믈엄즉ᄒᆞ도다

深知好顔色莫作委泥沙 ᄂᆞᆺ비치 됴호ᄆᆞᆯ 기피 아노니 泥沙애 ᄇᆞ리여 ᅀᅭ몰ᄃᆞ외디 마롤디어다

江畔獨步尋花七絕句

江上被花惱不徹無處告訴只顚狂 ᄀᆞᄅᆞᆷ우희 고지

ᄒᆞ놀요ᄆᆞᆯ마디아니홈을니버告許홀 走覓
셔히엽서오직엽드리미친ᄃᆞᆺᄒᆞ라
南隣愛酒伴經旬出飲獨空牀 甫ㅣ自註解 斯酇은吾酒
徒ㅣ라○南녁이우첫술ᄉᆞ랑ᄒᆞᄂᆞᆫ버들下
라가어더열흐리거냐ᄃᆞ록나가셔머구니
ᄒᆞ오아平牀이뷔엿도다
稠花亂蘂裏江濱行步欹危實怕春 한곳과 어즈러
운곳지ᄀᆞ옰ᄀᆞ올ᄲᆡ렛ᄂᆞ니거러ᄃᆞᆫ뇨ᄆᆞᆯ기
우려어려이ᄒᆞᄆᆞᆫ真實로보미ᄀᆞᆯ가저헤니
라 詩酒尙堪驅使在未須料理白頭人 言雖老ᄒᆞ
나尙可以當詩酒之後也ㅣ라白頭人은甫
ㅣ自謂라○글와수릐모라ᄇᆞ룜이쇼ᄆᆞᆯ로

히려 이 괴리로소니 구틔여 머리 셴 사ᄅᆞ미라 ᄒᆞ야 혜아리디 마롤디니라

江深竹靜兩三家 多事紅花映白花 ᄀᆞᄅᆞ미 깁고 대 寂靜ᄒᆞᆫ 두어 지븨 어즈러운 블근 고지 힌 고ᄌᆞᆯ 비취옛도다

報荅春光知有處 應須美酒送生涯 수를 머거 人生 보내요미 春光 報荅ᄒᆞᄂᆞᆫ 이리라 ○ 봆빗가 플ᅀᅥ 이쇼ᄆᆞᆯ 아노니 당당이 모로매 됴ᄒᆞᆫ 술로 人生 몯 보내욜디로다

東望少城花滿烟 百花高樓更可憐 少城은 在成都ᄒᆞ다 百花樓ᄂᆞᆫ 百花潭ㅅ 上之樓ㅣ라 ○ 東녁그로 少城을 ᄇᆞ라오니 고지 니ᅀᅦ ᄀᆞ독ᄒᆞ얏ᄂᆞ니 온가짓 곳 ᄠᅳᆫ 노ᄑᆞᆫ 樓ᄂᆞᆫ 任어루ᄃᆞᆺ 오도다

誰能載酒開金盞喚

取佳人舞繡筵뉘能히수믈시러金盞올여려고온사ᄅᆞᆷ블러다가繡질ᄒᆞᆫᄃᆞᆺ긔ᄎᆞᆷᄎᆞ게ᄒᆞ려뇨

黃師塔前江水東春光懶困倚微風黃師塔ㅅ앏ᄀᆞᄅᆞᆷ東녀긔ᄇᆞᆷ비치게을어잇비微風에지엿도다

桃花一簇開無主可愛深紅愛淺紅桃花ᄒᆞᆫ퍼기픠님자히업스니기피블그니도ᄃᆞ히ᄉᆞ랑ᄒᆞ오며여ᄐᆡ블그니도ᄉᆞ랑ᄒᆞᆷ도다

黃四娘家花滿蹊千朵萬朵壓枝低黃四娘ᄋᆡ지븨고지길헤ᄀᆞ독ᄒᆞ얏ᄂᆞ니즈믄들굴와一萬들구리가지ᄅᆞᆯ지즐워ᄂᆞ즈기ᄒᆞ엿도다

留

連戲蝶時時舞自在嬌鶯恰恰啼머므러셔노ᄂᆞᆫ나ᄇᆡᄂᆞᆫ時時예춤추고自在ᄒᆞᆫ아ᄅᆞᆺ다온곳고리ᄂᆞᆫ恰恰히우ᄂᆞ다

不是愛花卽欲死只恐花盡老相催卽欲死ᄂᆞᆫ너모ᄉᆞ랑ᄒᆞᄆᆞᆺ마리라ㅇ이고ᄌᆞᆯᄉᆞ랑ᄒᆞ야셔곤죽고져호미아니라고지업스면늘구미셔르뵈알가오직저헤니라

繁枝容易紛紛落嫩蘂商量細細開한가지ᄂᆞᆫ쉬이어즈러이디고보ᄃᆞ라온곳부리ᄂᆞᆫ혜아려ᄀᆞᄂᆞ리프ᄂᆞ다

草古詩一首 律詩二首

除草

草有害於人曾何生阻脩 言草之毒者ㅣ不必生於遠地也ㅣ라ㅇ프리사ᄅᆞᆷ미게害ᄒᆞᆯ거시엇나니엇뎨일즉먼ᄃᆡ가나리오

其毒甚蜂蠆其多彌道周 그모디로ᄆᆞᆫ밧ᄂᆞᆫ버리라와甚ᄒᆞ고그하ᄆᆞᆫ길ㅎ구븨예ᄀᆞ독ᄒᆞ얫도다

清晨步前林江色未散憂 몰ᄀᆞᆫ새배앏수프레건너셔ᄀᆞᄅᆞᇝ비체시르믈흗디몯ᄒᆞ라

芒刺在我眼焉能待高秋 言急於除去ㅣ라不待秋月之枯萎ㅣ니라ㅇ가시내누네잇ᄂᆞᆫᄃᆞᆺᄒᆞ니엇뎨能히노ᄑᆞᆫᄀᆞᅀᆞᆯ홀기들우리오

霜雪一霑凝蕙葉亦難留 이ᄂᆞᆫᄀᆞ올오면이우롤주롤니ᄅᆞ니라ㅇ서리와눈괘ᄒᆞᆫ번저저얼믜면蕙草ㅅ닙도ᄯᅩ머므러쇼ᄆᆞᆯ

미어러우니라 荷鋤先童稚日入仍討求 討求ᄂᆞᆫ 플 ᄡᅵᄂᆞᆫ 닐이 더윌시라 ○ ᄒᆞ미 메여 아ᄒᆡ로 몬져 가히 ᄃᆡ ᄃᆞ록 지ᄌᆞ로 ᄎᆞ자 이시도다 轉致水

中央豈無雙釣舟 言釣舟로 載而棄水中也ㅣ라 ○ 올뎌 믌가온ᄃᆡ 가게 ᄒᆞ니 엇데 두 고기 낫ᄂᆞᆫ ᄇᆡ 업스리오 頑根易滋蔓敢使依舊

丘 이ᄂᆞᆫ 모로매 므레 뵌 ᄠᅳ들 니ᄅᆞ니라 ○ 모딘 불휘 수이 ᄡᅥ ᄎᆞᆷ 나ᄂᆞ니 구틔여 힘ᄡᅥ 녯 두들글 브텟게 ᄒᆞ리아 自玆藩籬曠更覺松竹幽 일로 브터 울히 훤ᄒᆞ니 ᄯᅩ 솔와 대왜 幽深ᄒᆞ몰 알리로다 披奚不可關疾惡

信如讎 뷔여 ᄇᆞ룐 門 關티 몯ᄒᆞᆯ 거시니 모딘 것 아쳐로ᄆᆞᆯ 眞實로 怨讎ᄀᆞ티 ᄒᆞ노

라

、庭草

楚草經寒碧庭春入眼濃 楚ㅅ 프리 치위를 디내야 프르니 빋ᄂᆞᆯ

헷 븘비치 누네 드러 돋깁도다 舊低収葉擧新掩捲牙宣 言低

垂収斂之葉이逢春而擧起ᄒᆞ며新春掩捲之芽ㅣ重疊而生也ㅣ라○녜ᄂᆞᆫ 조ᄀᆞᆷᄒᆞ야 조

리헷던 니피 니르왓고 새ᄀᆞ려 거뎻ᄂᆞᆫ 어미 여리ᄇᆞ리로다 步履宜輕過

開筵得屢供 供요草色ㅣ供筵也ㅣ라○신 신고 거러가비야이 디나가미

됴ᄒᆞ니 돗ᄀᆞᆯ 여러 ᄌᆞ조ᄋᆞᆯ 요몰 아두라 看花隨節序不敢强爲

容 容은 容飾也ㅣ라 ○ 곳보ᄆᆞᆯ 時節을 조차 ᄒᆞ고 구틔여 고ᄃᆞ파 ᄭᅮ뮤믈 아니ᄒᆞ노라

、蒹葭

摧折不自守 秋風吹若何 不自守ᄂᆞᆫ 여러누이 것드를시라 ○ 것드러 제 모ᄆᆞᆯ 守ᄒᆞ디 몯ᄒᆞ노소니 ᄀᆞᅀᆞᆳ ᄇᆞᄅᆞ미 부ᄂᆞ니 엇뎨ᄒᆞ리오

暫時花戴雪 幾處葉沈波 아니한 ᄡᆞᆯ 고지 누 엣ᄂᆞᆫ ᄃᆞᆺᄒᆞ니 몃 고ᄃᆡ 닙피 믌겨레 ᄃᆞᆷ겻ᄂᆞᆫ고

體弱春苗早 叢長夜露多 옷드미 바ᄃᆞ라오니 봆 어미 이르고 퍼기가 니 밦 이스리 하도다

江湖後搖落 亦恐歲蹉跎 이거시 뎌뒤 뻐러딜시 아니 時節이어 그리 ᄎᆞᆫ가 ᄒᆞ니라 ○ ᄀᆞᄅᆞ매셔 이어며

벼리 듀미 後에 ᄒᆞᄂᆞ니 ᄯᅩ 히어 긔리 촌가 젼노라

竹 律詩 三首

、嚴鄭公宅同詠竹得香字

綠竹半含籜 新梢纔出墻 籜ᄋᆞᆫ 竹皮ㅣ라 ○ ᄑᆞ른 대ᄂᆞᆫ 半만 거프를 머굼고 새 가지ᄂᆞᆫ 아야라 다매 내왓도다 色侵書帙晩 陰過酒罇涼 비ᄎᆞᆫ 書帙ㅅ 나조ᄒᆡ 侵陵ᄒᆞ얏고 ᄀᆞᄂᆞᆯᄒᆞᆫ 酒罇ㅅ 서늘호ᄆᆡ 디나놋다 雨洗娟娟淨 風吹細細香 娟娟ᄋᆞᆫ 美也ㅣ라 ○ 비 시스니 娟娟히 조코 ᄇᆞᄅᆞ미 부니 細細히 곳답도다 但令無翦伐 會見拂雲長

오직히여곰버히디마라모로매구루믈뻘이저기로몯볼디로다

從韋二明府續處覓綿竹三數叢

華軒藹藹他年到綿竹亭亭出縣高 華軒은指明府之軒이라綿竹은竹名이라○빗난軒檻이藹藹ᄒᆞᆫ디녀느ᄒᆡ예니르러가니綿竹이노피ᄀᆞ올ᄒᆡ내와다놉더라

江上舍前無此物幸分蒼翠拂波濤 江上舍ᄂᆞᆫ浣花溪上舍也ㅣ라○ᄀᆞᄅᆞᆷᄀᆞᆺ집알ᄑᆡᆫ이거시업스니ᄒᆡᆼ혀프르거슬ᄂᆞᆫ화보내야믈겨를뻘일게ᄒᆞ라

、苦竹 竹名이라

青冥亦自守軟弱強扶持青冥은指言山ᄒᆞ다○青冥에ᄯᅩ제
모몰가졋도소니보ᄃᆞ라와고ᄃᆞᆯ파ᄇᆞ르더위자ᄇᆞᆺ도다味苦夏蟲避叢
卑春鳥疑마시ᄡᆞ니녀르멧벌어지여가고퍼기ᄂᆞᆺ가오니봆새疑心ᄒᆞᄂᆞ
다軒墀曾不重剪伐欲無辭言階墀예不種此竹ᄒᆞᆯ서人皆
伐之니라○軒墀예일즉重히너기디아니ᄒᆞᄂᆞ니베혀가몰말오져ᄒᆞ더몯ᄒᆞᄂᆞ다
幸近幽人屋霜根結在茲幽人은甫ㅣ自謂라○幸혀幽人의
지비갓가오니서리옛불휘미자이어긔잇도다

木 古詩七首 律詩七首

古栢行

孔明廟前有老栢柯如青銅根如石 夔州ㅅ孔明廟ㅣ라 ○ 孔明ㅅ廟ㅅ알ᄑᆡ 늘근 잣남기 것ᄂᆞ니 가지ᄂᆞᆫ 프른 구리 ᄀᆞᆮ고 불휘ᄂᆞᆫ 돌 ᄀᆞᆮ도다

霜皮溜雨四十圍黛色參天二千尺 서리 마ᄌᆞᆫ 거프리 비 저저 마ᄋᆞᆫ 아ᄂᆞ미오 프른 비치 하ᄂᆞᆯ헤 다ᄒᆞ니 二千 자히로다

君臣已與時際會樹木猶爲人愛惜 謂劉備孔明ㅣ相遇也ㅣ니 思ㅣ其人故로 愛其樹也ㅣ라 ○ 님금과 臣下괘 ᄒᆞ마 時로 다뭇 맛ᄃᆞᄅᆞ니 나모도 오히려 사ᄅᆞ미 ᄉᆞ랑ᄒᆞ요미 ᄃᆞ외옛도다

雲來氣接巫峽長月出寒通

雪山白 구루미오나氣運이巫峽이긘뒤너 엇고ᄃᆞ리도ᄃᆞ니서늘호ᄆᆞᆫ雪山이
허연뒤ᄉ ᄆᆞ찻도다 憶昨路繞錦亭東先主武侯同閟
宮 先主ᄂᆞᆫ劉備오武侯ᄂᆞᆫ孔明이라成都애 武侯ㅅ廟ㅣ附先主廟ᄒᆞ니라○뎌주움
ᄢᅴ길흘錦亭東녀그로버므러가몰ᄉᆞ랑 호니先主와武侯왜ᄀᆞᄐᆞᆫ宮이ᄒᆞᆫ뒤러라 崔
嵬枝幹郊原古窈窕丹青戶牖空 노ᄑᆞᆫ가지 와옷듬괘
미햇두들게녀르외니깁수 원켤ᄒᆞ욘戶牖ㅣ뷔엿더라 落落盤踞雖得
地冥冥孤高多烈風 고落落은高皃ㅣ라○놉 블휘서려비록ᄯᅡ홀
어더시나아ᄋᆞ라히외로외 오노파ᄇᆞᄅᆞ미하도다 扶持自是神明

力正直元因造化功 디위자ᄇᆡ뉴믄스싀로 이神明의힘이로소니

正直호믄본디로造 化ㅅ功울圖ᄒᆞ도다 大廈如傾要梁棟萬牛回首丘山重 큰지비ᄒᆞ다가기울면梁棟잉 골오져조오로이니거리니一 萬쇠그어가노라머리롤도로뼈 셔丘山ᄀᆞ티므거이너기리로다 不露文章世已驚未辭剪伐誰能送 비츨나토디아니 ᄒᆞ야도世에셔ᄒᆞ 마놀라ᄂᆞ니버휴믈마다ᄒᆞ디아 니컨마론뉘能히버혀보내리오 苦心豈免容螻蟻香葉終經宿鸞鳳 쁜ᄆᆞᄋᆞ믄엇데가 야미드러슈믈免 ᄒᆞ리오곳다온니플ᄆᆞᄎᆞᆷ 매鸞鳳자몰디내리르다 志士幽人莫怨嗟

古來材大難爲用 言有材者ㅣ不得見用也ㅣ니라○ᄠᅳᆮ가진士와幽
隱ᄒᆞᆫ사ᄅᆞᄆᆞᆫ怨嗟ᄒᆞ디말라녜로오매
材質이큰거슨ᄡᅳ유미어려우니라

四松

四松初移時大抵三尺強 네소남ᄀᆞᆯ처엄옮겨시믈제大抵ᄒᆞᆫ
ᄌᆡ석자남즉ᄒᆞ더니라
別來忽三歲離立如人長 여희여오
매은드시세히니방으려셔니사ᄅᆞ미기릐와곤도다
會看根不拔莫
計枝凋傷 모로매불휘ᄲᅡ혀디아니호믈보리니가지의ᄠᅳ러허루믈혜디
아니ᄒᆞ노라
幽色幸秀發踈柯亦昂藏 幽深ᄒᆞᆫ비치幸히秀

發ᄒᆞ니드믄가지
作ᄃᆡ오와닷도다 所插小藩籬本亦有隄防
終然振撥損得愧千葉黃 振은音星이니振
撥은다ᄃᆞᆯ어이어
눈양이라籬本護松이리니이제허러ᄇᆞ려
실시니피이우니라○ᄀᆞ자ᄃᆞᆺ논겨근올흔
本來作막준오미잇더니ᄆᆞᄎᆞᆷ매다ᄃᆞᆯ어ᄒᆞ
야ᄇᆞ리니ᄌᆞ믄니피이우러누러호몰시러
곰뭇그
려리아 敢爲故林主黎庶猶未康 言兵亂애
民尚不保
其居ㅣ니況敢保松竹아○구틔여넷ᄉᆞ프
렛님자히로라ᄒᆞ야리아百姓도오히려便
安티몯
ᄒᆞ니라 避賊今始歸春草滿空堂 寶應元年
에甫ㅣ避
蜀亂ᄒᆞ야遊梓閬ᄒᆞ다가廣德二年春에再
來蜀ᄒᆞ니라○盜賊을避ᄒᆞ야ᄃᆞᆫ니다가이

제아비 ᄅᆞᆺ도라오니 보깃 ᄑᆞ리 ᄇᆞᆫ지 ᄇᆡᄀᆞ ᄃᆞᆨᄒᆞ얫도다 覽物歎衰謝及

茲慰淒涼 時物을 보고 늘구믈 嗟歎ᄒᆞ다니 이 어긔미 치와 淒涼호ᄆᆞᆯ 慰勞ᄒᆞ노라

淸風爲我起洒面若微霜 ᄆᆞᆯᄀᆞᆫ ᄇᆞᄅᆞ미 나를 爲ᄒᆞ야 니러 ᄂᆞᄎᆡ ᄲᅳ리니 微微ᄒᆞᆫ 서리 ᄀᆞᆺ도다

足以送老姿聊待偃蓋張 老姿ᄂᆞᆫ 甫ㅣ 自謂라 偃蓋ᄂᆞᆫ 謂松也ㅣ라○예 사라셔 足히 배곰 내 늘근 양ᄌᆞᄅᆞᆯ 보내리로소니 ᄀᆡ운 蓋 펏ᄃᆞᆺ ᄒᆞᄆᆞᆯ 기들오노라

我生無根蔕配爾亦茫

茫 無根蔕ᄂᆞᆫ 言飄泊無定ᄒᆞ야 不得與松으로 長爲伴也ㅣ라○내 불휘와 고고리 업수니 너를 ᄧᆞᆨᄒᆞ야 茫미 ᄯᅩ 아ᄋᆞ라ᄒᆞ도다 有情且賦詩事迹兩可

忘ᄠᅳ디이실시그를짓노니일와자최와둘흘니즐디로다 勿矜千載後

慘澹蟠穹蒼 言千載之後에勿誇參天而長이니非甫의及見也ㅣ니라○

즈믄힛後에慘澹히하ᄂᆞᆯ해서려슈믈矜誇ᄒᆞ디말라

病栢

有栢生崇岡童童狀車蓋 잣남기노ᄑᆞᆫ뫼헤ᄲᅦ나니두렷ᄃᆞᆫ숫ᄒᆞ야양ᄌᆡ술위녯蓋ᄀᆞᆺ도다 偃蹇龍虎姿主當風雲會 偃蹇온高皃ㅣ라○偃蹇ᄒᆞ야龍과버믜얼굴ᄀᆞᆺᄒᆞ니ᄌᆡ主意는ᄇᆞᄅᆞᆷ과구룸모다슈믈當ᄒᆞ얏다 神明依正直故老多再拜 神明이正直호매브텃고녯늘

그닐 再拜ᄒᆞ리하도다 豈知千年根中路顏色壞 謂得病也

ㅣ라 ○ 즈은 희롤 이실 불휘ᄉᆞ이 예 顏色이 허롤고도 어느 알리오 出非不得

地蟠據亦高大歲寒忽無憑日夜柯葉改 도다

付홈엿디 몯ᄒᆞ디 아니ᄒᆞ며 서러브터 흠도 任노프며 크거ᄂᆞᆫ 치위예 忽然히 依憑티

몯ᄒᆞ야 日夜애 가지와 닙괘 改變ᄒᆞ놋다 丹鳳領九雛哀鳴翔其

外鴟鴞志意滿養子穿穴內 此ㅣ 喻崔旰이 殺郭英乂ᄒᆞ고

叛據成都ᄒᆞ니라 丹鳳ᄋᆞᆫ 比英乂오 鴟鴞ᄂᆞᆫ 比崔旰ᄒᆞ니라 ○ 丹鳳ᄋᆞᆫ 아홉 삿기롤 거느

려 슬허 우러 그 밧기셔 飛翔ᄒᆞ거놀 鴟鴞ᄂᆞᆫ ᄠᅳ디 ᄀᆞ독ᄒᆞ야 삿기롤 치더니 못 구무 안ᄒᆞᆯ

ᄂᆞᆯ위ᄃᆞᆺ도다

客從何鄕來竚立久吁怪 客ᄋᆞᆫ 甫ㅣ 自謂라 ᄂᆞ

나그내ᄂᆞᆫ 어느 ᄀᆞ올로조차 와 오래 셔셔 怪異히 너기 吁嘆ᄒᆞᄂᆞ뇨 오래ᄒᆞ가니오 請

求元精理浩蕩難倚賴 言細思天理ᄒᆞ니 福善禍淫之道ㅣ 茫昧ᄒᆞ야 不可賴倚而明徵也ㅣ라 此ᄂᆞᆫ 嘆崔旰之亂ᄒᆞ니라 ○ᄀᆞᄆᆞ니 이셔 元精理ᄅᆞᆯ 尋求ᄒᆞ요니 浩蕩ᄒᆞ야 비기야ᄅᆞ미 어렵도다

病橘

群橘少生意雖多亦奚爲 뭀 橘木이 사ᄅᆞᆯ ᄠᅳ디 져그니 비록 한ᄃᆞᆯ ᄯᅩ 엇뎨 ᄒᆞ리오

惜哉結實小酸澁如棠梨 棠子ㅣ 有赤白

二色ᄒᆞ니라○ᄂᆞᆯ프다 여름ᄆᆡ조미 쥐그나 싀오 ᄇᆡᆯ위 棠梨ㅅ 맛 곤도다 剖之盡
蠹蟲采掇爽其宜 言不宜采掇也ㅣ라○ᄲᅢ 혀 니다 벌어지로소니 바
오매 맛당호ᄆᆞᆯ 일흐리로다 紛然不適口豈止存其皮 눈이
솔히 엽서 거플 ᄯᆞᄅᆞᆷ이 실 ᄲᅮᆫ 아니라 이 베 맛
다 몯ᄒᆞ다니ᄅᆞᆯ 시라○어즈러이 이 배 맛디
몯ᄒᆞ니 엇뎨 그 거프 리 이실 ᄯᆞᄅᆞᆷ미리오 蕭蕭半死葉未忍別故
枝 蕭蕭ᄂᆞᆫ 風聲이라○ᄇᆞᄅᆞᆷ매 불이ᄂᆞᆫ 반만 주근 니피 ᄇᆡᆺ가지예 희유믈 참디 몯ᄒᆞ놋
다 玄冬霜雪積況乃迴風吹 겨으레 서리와 눈괘 사햇거늘
ᄒᆞ몰며 횟도ᄅᆞ리 ᄇᆞᄅᆞ미 부놋다 嘗聞蓬萊殿羅列瀟湘姿 瀟湘

애有橘田橘洲ᄒᆞ니每歲入貢ᄒᆞᄂᆞ니라○
일즉드로니蓬萊殿에瀟湘앳양지비렛도
다 此物歲不稔玉食失光輝 稔은熟也ㅣ라 玉食은王者之
食이니言橘病不熟ᄒᆞ야無以供貢ᄒᆞ니玉
食에無光也ㅣ라○이거시歲예닉디아니
ᄒᆞ니님금자샤
매비치업도다 寇盜尚憑陵當君減膳時汝
病是天意吾愁罪有司 言當禍亂ᄒᆞ야天子
ㅣ必減膳自責ᄒᆞ시
ᄂᆞ니今橘之病은天意예使吾君으로欲減
膳이어늘反罪有司之不供也ㅣ라○盜賊
이오히려ᄀᆞᆯ외ᄂᆞ니님금物膳더르실ᄢᅴ當
ᄒᆞ엿ᄂᆞ니네病호ᄆᆞᆫ하ᄂᆞᆳᄠᅳ디시니나ᄂᆞᆫ
有司罪주믈
시름ᄒᆞ노라 憶昔南海使奔騰獻荔枝百馬

死山谷到今耆舊悲 借漢入南海ㅣ獻荔枝事ᄒᆞ야言明皇이為貴妃ᄒᆞ야貢荔枝之弊ᄒᆞ니라 ○ ᄉᆞ랑ᄒᆞᆫ뎐ᄂᆡ南海入使臣이ᄃᆞᆯ이녀荔枝ᄅᆞᆯ進獻ᄒᆞ니온ᄆᆞ리묏고리셔죽더니이제니르리늘근녯사ᄅᆞ미슬놋다

桔欀

蜀門多欀櫚高者十八九 欀은音騣이오櫚ᄂᆞᆫ音閭ㅣ니欀櫚ㅣ有葉無枝ᄒᆞ니皮可為編이니라 ○ 蜀門예欀櫚ㅣ하니노ᄑᆞ니아연헤열아홉곰ᄒᆞ도다

其皮割剝甚雖衆亦易朽 그거프를벗규미甚ᄒᆞ니비록하나또수이석놋다

徒布如雲葉青青歲寒後 구룸ᄀᆞᄐᆞᆫ니피

치운後에퍼러ᄒᆞ、야ᄒᆞᆫ갓뎟도다 交橫集斧斤凋喪先蒲柳 蒲柳ᄂᆞᆫ生澤中ᄒᆞᄂᆞ니望秋先零ᄒᆞᄂᆞ니라 ○서르빗기도최모ᄃᆞ연ᄇᆡ라ᄃᆡ미蒲柳ㅣ라와몬뎨로다

傷時苦軍之一物官盡取 言蜀人이取橘皮ᄒᆞ、야賣充軍需也ㅣ라○이時節에甚히軍粮이업서一物이라도구위예셔다아오몰ᄋᆞᆯ노라

嗟爾江漢人生成復何有 슬프다너江漢에셔사ᄂᆞᆫ사ᄅᆞ미여사라이슈믄ᄯᅩ어느이시리오

有同枯棧木使我沉歎久 이운棧木과ᄀᆞ토미잇ᄂᆞ니날로ᄒᆞ여곰기피슬호몰오라게ᄒᆞᄂᆞ다

死者即已休生者何自守 주그니ᄂᆞᆫ곧ᄒᆞ마말려니와사라잇ᄂᆞᆫ닌돌엇뎨제모몰

가져시秋秋黃雀啅側見寒蓬走啅은與啄으로同ᄒᆞ

다ㅇ우르적시논黃雀이격주리ᄂᆞ니 서눈흔다보지ᄃᆞ로몯기우려보ᄂᆞ다 念爾

形影乾摧殘沒藜莠네의열굴와그르메몰 론몰思念ᄒᆞ노니것드

러ᄑᆞ어리예 ᄲᅡ뎃도다

桔槔

楩柟枯崢嶸鄕黨皆莫記柟은音南이니葉 似桑ᄒᆞ고子似杏

而酸ᄒᆞ니라崢嶸은高貌ㅣ라莫記ᄂᆞᆫ이운 히ᄅᆞᆯ모ᄅᆞᆯ시라ㅇ楩柟이이우러崢嶸ᄒᆞ니

鄕黨앳사ᄅᆞ미 다모ᄅᆞᄂᆞ다 不知幾百歲慘慘無生意아 디

몯ᄒᆞ리로다 녯즈믄 ᄒᆡ오 슬퍼사롤ᄠᅳ디업도다 上枝摩皇天下根
蟠厚地 웃가지ᄂᆞᆫ 큰하ᄂᆞᆯ홀 골오아랫 불휘ᄂᆞᆫ 두거운ᄯᅡ해서렛도다 巨圍
雷霆拚萬孔蟲蟻萃 큰ᄂᆞᆯ에 굴벼라기ᄢᅢ티 니 一萬굼긘 벌어지와
가야미왜 모댓도다 凍雨落流膠衝風奪佳氣 江東이 夏月暴
雨ᄅᆞᆯ 呼爲凍雨ㅣ니라 柟木에 有膠ㅣ如香 可燒ㅣ니라 ○ 싀나기예 흐르ᄂᆞᆫ 지니 듣ᄂᆞ
니ᄢᅵ 부ᄂᆞᆫ ᄇᆞᄅᆞ ᄆᆞᆫ 아ᄅᆞᆷ 다온 氣運을 앗ᄂᆞ다 白鵠遂不來天雞為
愁思 柟木이 既枯ᄒᆞ야 白鵠天雞ㅣ 不可棲 止일ᄉᆡ 不來而愁也ㅣ라 ○ 白鵠이 지
즈ᄅᆞ오디 아니코 天鷄 ᄂᆞᆫ 為ᄒᆞ야 시름ᄒᆞᄂᆞ다 猶含棟梁具無復霄

漢志良工古昔少識者出涕淚 言此搆ㅣ雖結ᄒᆞ나猶可

為棟梁이언마ᄅᆞᆫ良匠을未遇故로識者ㅣ傷之ᄂᆞ니라○오히려棟梁ᄆᆡᆼᄀᆞᆯ거슬머것

고匠하ᄂᆞᆯ해ᄋᆞᆯ아갈ᄠᅳ든업도다어딘工匠이비록져그니알사ᄅᆞᄆᆞᆫ눈므를내놋다

種楡水中央成長何容易截承金露盤裊裊

不自畏 漢武帝作承露盤ᄒᆞ니라裊裊ᄂᆞᆫ弱貌ㅣ라言楡木이易長이언마ᄅᆞᆫ然

承金露盤ᄒᆞ면其質本柔ᄒᆞ야難以撐拄ㅣ니以比小人의任大事而必至顚覆ᄒᆞ다○

느릅남ᄀᆞᆯ믈가온ᄃᆡ시므니ᄌᆞ라오미ᄌᆞ모쉽건마ᄂᆞᆫ버혀金露盤ᄋᆞᆯ바ᄃᆡ면보ᄃᆞ랍거

니스ᄉᆞ로저프디아니ᄒᆞ리아

海椶行

左緜公館清江濆海椶一株高入雲 左綿은 綿州ㅣ니 在涪水之左也ㅣ라 ○左綿에ㅅ 구읫 지비 몯고 믌ᄀᆞ이로소니 海椶나모 ᄒᆞᆫ 株ㅣ노파 구룸 서리예 드럿도다 龍鱗犀甲相錯落蒼稜白皮十抱文 龍의 비늘와 犀牛의 甲이 서르 섯것ᄂᆞᆫ 듯ᄒᆞ니 프른 모콰 힌 거프리 열 아ᄅᆞ민 비치로다 自是衆木亂紛紛海椶焉知身出群 言衆木이 自不與椶으로 並也ㅣ라 ○스싀로 이 뭀 남기 어즈러이 紛紛ᄒᆞ란ᄃᆡ 만뎡 海椶은 어느 모미 무레 出ᄒᆞ요ᄆᆞᆯ 알리오 特移栽北辰不可得時有西

域胡僧識上句ᄂᆞᆫ言欲移植帝宮이라도不可得也ㅣ라下句ᄂᆞᆫ言大材ㅣ生非其地而中國人이無識者ᄒᆞ니蓋傷之也ㅣ라○宮闕에옮겨다가심구믈可히얻디몯ᄒᆞ리로소니時예西域엣되즁곳아라보ᄂᆞ다

、柳邊

只道梅花發那知柳亦新오직梅花ㅣ픳ᄂᆞ니라니ᄅᆞ다웨어느버드리ᄯᅩ새로외요몰알리오枝枝總到地葉葉自開春가지마다다ᄯᅡ해니르렛고닙마다제보미픳도다紫燕時翻翼黃鸝不露身져비時로ᄂᆞᆯ개를두위티ᄂᆞ니곳고리ᄂᆞᆫ모미나디아니ᄒᆞᄂᆞ다漢

南應老盡霸上遠愁人 漢南은南之所在梓州니甫ㅣ自喻其老ᄒᆞ다霸上ᄋᆞᆫ指長安ᄒᆞ니憶故鄕也ㅣ라○漢南애셔당당이늘거엽스리로소니霸上앳머리셔사ᄅᆞᆷ시름게ᄒᆞᄂᆞ다

、高柟

柟樹色冥冥江邊一蓋靑 柟樹ㅅ비치아독아독ᄒᆞ니ᄀᆞᄅᆞᇝᄀᆞ이ᄒᆞᆫ蓋ᄀᆞ리ᄒᆞᆫᄃᆞᆺᄒᆞ도다 近根開藥圃接葉製茅亭 블휘예갓가이藥시므는圃를열오니피다혀茅亭올지오라 落景陰猶合微風韻可聽 디ᄂᆞᆫᄒᆡ예ᄀᆞᄂᆞᆯ히오히려몯고져기부ᄂᆞᆫᄇᆞᄅᆞ매소리可히드럼즉ᄒᆞ도다

다 尋常絶醉困卧此片時醒샹ᄋᆡ 녜 ᄀᆞ장 술醉ᄒᆞ야 잇비 도이

어기누으면 片時에셔 ᄭᆡ놋다

、嚴鄭公堦下新松得霑字

弱質豈自負移根方爾瞻바ᄃᆞ라온 웃ᄃᆞ믄 엇ᄉᆞ뎨 제 가져시리오 올ᄆᆞ겨 심군 불휘를 뵈야ᄒᆞ로 너를 보노라 細聲聞玉帳疎翠近

珠簾그ᄂᆞᆫ 소리를 玉帳애셔 드르리로소니 ᄡᅥ긴 프른 비츤 珠簾에 갓갑도다 未

見紫烟集虛蒙淸露霑이ᄂᆞᆫ 소남기 그디 몯ᄒᆞᆫ 굴니르니라 ○ 블근 니모도 몯 보더 몯ᄒᆞ리로소니 ᄒᆞᆯ고 이ᄉᆞ뤼 져쥬믈 虛히 닙놋다 何當一百

丈歆蓋擁高簷 謂松이狀如偃盖也ㅣ라○어느지긔一百丈이노파기운盖노푼집기늘굴ᄡᅵ리려뇨

憑章少府班覓松樹子栽

落落出群非欅柳青青不朽豈楊梅 欅ᄂᆞᆫ音舉ㅣ라

이ᄂᆞᆫ泛言松之非柳梅之比ᄒᆞ니라○노파무예내와다ᄅᆞᆫ欅柳ㅣ아니오픠리ᄒᆞ야시ᄅᆞ디아니ᄒᆞ미엇데楊梅리오

欲存老蓋千年意爲覓霜根數寸栽 霜根ᄋᆞᆫ言松根이耐霜也ㅣ라○늘근盖의즈믄ᄒᆡᆺᄠᅳ들두고져ᄒᆞ야서리옛불휘두어寸만ᄒᆞᆫ栽種을爲ᄒᆞ야엇노라

憑何十一少府邕覓榿木數百栽

草堂塹西無樹林非子誰復見幽心 草堂ㅅ 굴헝 西ㅅ녀긔 나모 수프리 업스니 그듸 아니면 뉘 ᄯᅩ 幽深ᄒᆞᆫ ᄆᆞᅀᆞᄆᆞᆯ 보리오

飽聞榿木三年大與致溪邊十畝陰 榿ᄂᆞᆫ 音欹라 蕭 自註 蜀人이 以榿로 爲薪ᄒᆞᄂᆞ니 三年에 可燒ㅣ니라 十畝陰은 十畝애 ᄀᆞ시 ᄆᆞ게 보내라 ᄒᆞ논 마리라 ○榿木이 세 ᄒᆡ예 크믈 비르르 드릇노니시 내 ᄀᆞ잇 열이럼만 ᄒᆞᆫ ᄀᆞ놀호 주어 보내라

、樹間

岑寂雙甘樹婆娑一院香 岑寂은 高靜也ㅣ라 ○ 놉고 ᄀᆞ만ᄒᆞᆫ

두ᄇᆡ子ㅅ 남기여 婆娑ᄒᆞ야 ᄒᆞᆫ院이 곳답도다 交柯低几杖 垂實礙衣裳 가지 섯거 几와 막대예 ᄂᆞᄌᆞᆨᄒᆞ고 여르미 드리여 옷ᄀᆞ외ᄅᆞᆯ ᄀᆞ리오ᄂᆞ다 滿歲如松碧 同時待菊黃 如松碧은 言終歲히 如松之碧也ㅣ라 ○ ᄒᆞᆫᄒᆡᄅᆞᆯ 太게 솔ᄀᆞ티 퍼러ᄒᆞᄃᆞᆫ 소니 ᄒᆞᆫ ᄢᅴ 菊花ᄅᆞᆯ 기들워 누러ᄒᆞ리로다 幾迴霑葉露 乘月坐胡床 몃디위ᄅᆞᆯ 니플 저지ᄂᆞᆫ 이스레 ᄃᆞᆯ비ᄎᆞᆯ 타 胡床애 앉가니오

、惡樹

獨遶虛齋徑 常持小斧柯 뷘 집 길헤 ᄒᆞ오ᅀᅡ 횟도라 長常 져근

도ᄎᆡ롤 가쥐슈타

幽陰成頗雜惡木翦還多 幽深ᄒᆞᆫ ᄀᆞᄂᆞᆯ히 이러ᄌᆞ모 섯깃ᄂᆞ니 사오나온 남ᄀᆞᆫ 버혀도 도로 하도다

枸杞因吾有雞棲奈汝何 枸杞ᄂᆞᆫ 一名 地骨皮니 服之ᄒᆞ면 輕身益氣니라 翦去惡木ᄒᆞ야 不蔽障故로 枸杞ㅣ 遂其生이연마ᄅᆞᆫ 但翦去木枝叔 妨雞栖ㅣ니라 ○枸杞ᄂᆞᆫ 본ᄃᆡ 내 뒷ᄂᆞᆫ 거시어니와 ᄃᆞᆯ기 깃호ᄆᆞᆯ 네게 엇뎨ᄒᆞ려뇨

方知不材者生長謾婆娑 ᄠᅳ디 몯ᄒᆞᆯ 材質은 나 기루미 쇽졀업시 婆娑호ᄆᆞᆯ 뵈야호로 아노라